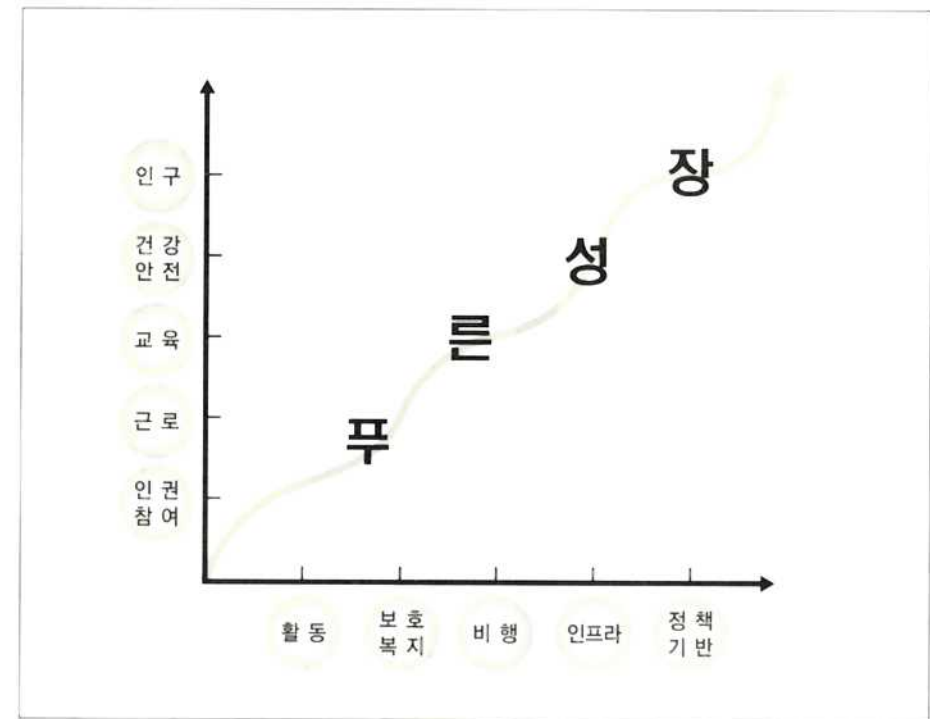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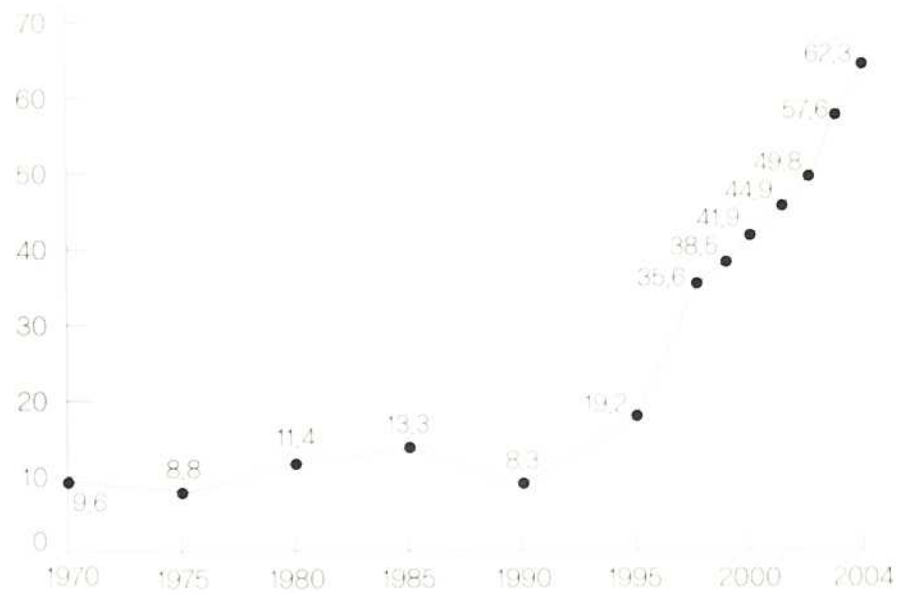
지를 한다. 또한 사례판정위원회를 운영하여 아동학대 사례를 정확하게 판별하고 학대받는 아동에 대해서 상담치료 및 보호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아동학대 재발방지를 위하여 학대행위자를 대상으로 상담, 교육 등을 제공하고 있다. 그리고 지역사회 주민, 신고의무자 등에게는 아동학대예방교육을 실시하여 아동이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있다.



목표

## 제4부 청소년의 교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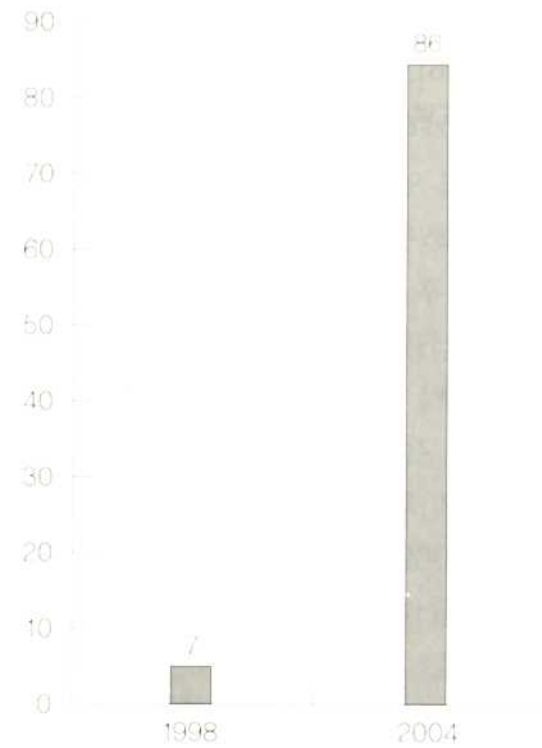
**실**업계 고등학교의 고등교육 진학률이 증가 인료에 있다. 실업계 고등학교의 고등교육 진학률은 1970년대에 10%미만이었으나, 1990년대 이후 계속 증가하여 2004년에는 62.3%에 달하였다. 이것은 실업교육의 실패를 보여주는 하나의 지표가 된다.



실업계고등학교의 대학진학률(%)



**특**성화 고등학교 제도의 입법화가 추진되어 1998년에 처음으로 7개의 특성화 고등학교가 개교하였다. 특성화 고등학교는 꾸준히 증가하여 2004년 현재 86개교가 운영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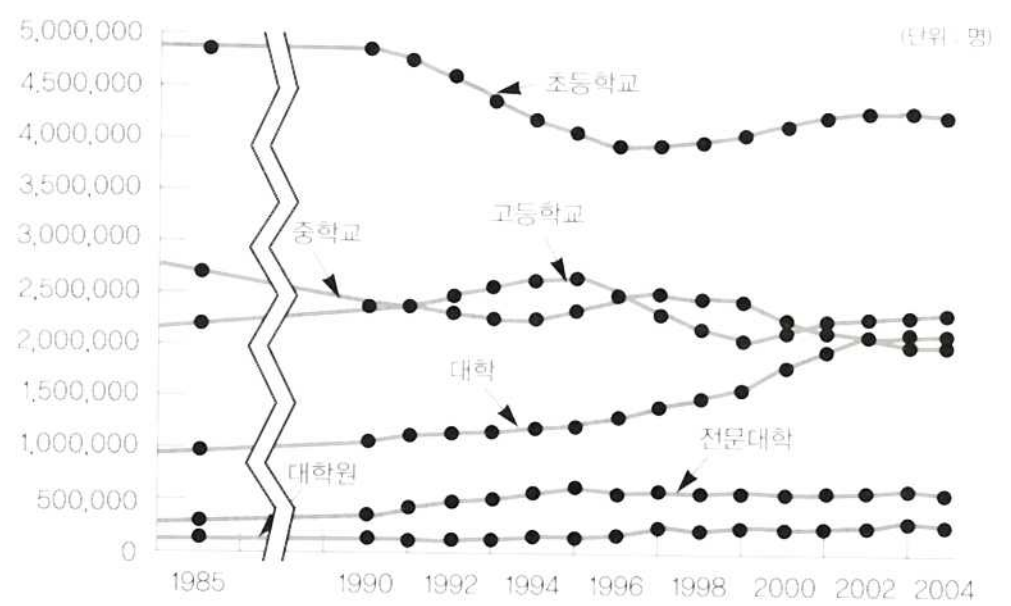
특성화고교수



## 제 1 장 학생인구 · 진학률 및 교육예산

### 1. 학생인구

2003년 현재 우리나라의 학교급별 재학생수의 추이를 살펴보면, 유치원의 경우 재학아동수는 1990년 증가 이후 1997년까지 완만한 증가, 1998년 이후 IMF사태 영향으로 다시 감소추세를 보여주다가 1999년 이후 증가추세로 돌아섰다. 초등학교 재학생수는 1990년 이후 소폭 감소하다가 1998년에 이르러 증가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중학교의 경우는 1985년 이후로 소폭 감소추세를 보여주다가 1992년부터 다시 증가현상을 나타내고 1995년부터는 다시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 고등학교 재학생수는 1990년을 정점으로 계속 감소추세를 나타내다가 1995년 이후에는 소폭으로 증가한 후, 1998년부터는 다시 감소추세로 돌아섰다.



자료 : 교육인적자원부 「교육통계연보」 2004에서 재구성

〈그림 4-1-1〉 연도별 학교 교육인구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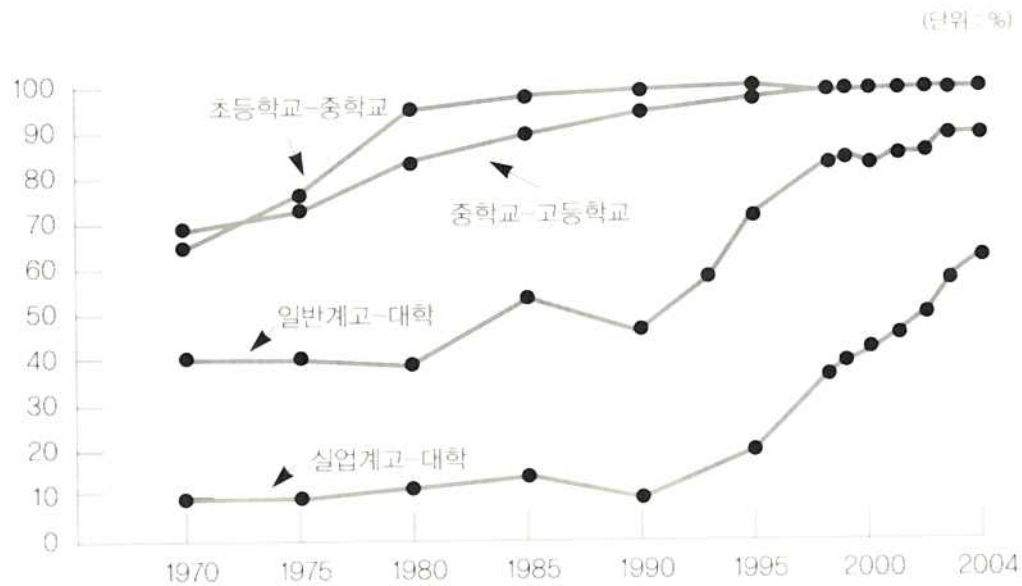
### 2. 진학률

진학률은 전체 졸업자 중 상급교육기관 진학자의 비율을 말한다. 초등학교 학생의 중학교 진학률은 1970년 66.1%에서 1980년 95.8%로 증가하였고, 1985년 이후 100%에 육박하는 높은 진학률을 보이고 있다. 1970년에 70.1%이었던 중학교 졸업자의 고등학교 진학률은 꾸준히 증가하여 1985년 90.7%, 1990년 95.7%에 도달하였다. 2004년의 진학률은 99.7%이다.

고등학교 졸업자의 고등교육기관 진학률은 1970년에 26.9%에 불과하였으나, 1985년 36.4%, 1995년 51.4%로 증가하였고, 2004년에는 81.3%가 진학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학생의 진학률 역시 1970년 이후 계속 증가하는 추세로, 2004년 현재 79.7%에 이르고 있다.

이를 일반계 고등학교와 실업계 고등학교로 나누어 살펴보면, 일반계 고등학교 졸업자의 진학률은 꾸준히 증가하여 1970년 40.2%, 1985년 53.8%, 2004년 89.8%로 나타났다. 이에 비하여 실업계 고등학교 졸업자의 진학률은 1970년대에 10% 미만이었으나, 1980년 이후 증가하여 1985년에는 13.3%가 고등교육기관에 진학하였고, 1990년에 잠시 감소하였다가 1990년대 후반 이후부터는 진학률이 높아져서 2003년부터는 50%를 넘어섰고 2004년에는 62.3%가 진학하였다. 여학생의 진학률을 보면 일반계 고등학교 여학생의 진학률은 1970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1985년에는 50%가 넘는 여학생이 진학하였고, 2004년에는 89.8%가 진학하였다. 실업계 고등학교 여학생의 진학률은 1990년 이전까지 10%미만으로 저조하였으나, 점차 증가하여 2004년에는 57.3%로 나타나고 있다.

실업계 고등학교에서 고등교육 단계로 진학하는 비율이 증가하고 있는 현



자료: 교육인적자원부 「교육통계연보」 2004에서 재구성

〈그림 4-1-2〉 연도별 · 학교급별 진학률 추이

상은 실업계 고등학교 교육의 성격을 새롭게 규정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1990년대 후반 이후 실업계 고등학교 졸업자의 고등교육기관 진학률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것은 소위 3D 업종에 대한 취업 기피와 같은 노동시장의 경향이 반영된 현상으로 볼 수도 있다.

### 3. 학교교육예산

2003년도 교육예산은 24조 9천 36억원이며, 시·도 교육청 자체수입 및 타 부처 교육예산을 포함한 교육재정규모는 30조 9천 639억원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약 4.29% 수준이다.

일반회계 기준 2004년도 교육예산은 22조 2천 134억원으로 정부예산 120조 1천 393억원의 18.5%를 차지하고 있다.

〈표 4-1-1〉 GDP대비 교육재정

(단위: 억원, %)

구 분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GDP 규모(A)	4,841,028	5,294,997	5,786,645	6,221,226	6,842,635	7,213,459
교육재정규모(B)	193,965	203,930	228,595	270,367	281,391	309,639
- 교육부소관 예산	174,861	179,030	197,256	215,829	225,282	249,036
- 시·도 자체수입	16,071	13,480	15,569	50,812	52,398	56,546
- 지방채(채특제외)	-	7,941	11,852	-	-	-
- 타부처 교육예산	3,033	3,479	3,918	3,726	3,711	4,057
GDP대비 비율(B/A)	4.01	3.85	3.95	4.35	4.11	4.29

주: 한국은행 발표 '04. 3. 23) 2003년 국민계정(잠정) 및 국민계정 기준년 개편결과, '04년은 '03년 대비 8.0% 성장추정  
 자료: 교육인적자원부

〈표 4-1-2〉 정부예산 대비 교육예산(일반회계) (단위: 억원, %)

구분	2000예산	2001예산	2002예산	2003예산	2004예산	2005예산안
교육예산(A)	126,514	178,017	187,107	206,934	222,134 (220,307)	234,130
정부예산(B)	887,363	991,801	1,096,298	1,181,323	1,201,393 (1,183,560)	1,315,000
구성비(A/B)	14.3	17.9	17.1	17.5	18.5 (18.6)	17.8

자료: 교육인적자원부

**세출예산**

- 2003년도 보다 5.9%(1조 4,805억원) 증가한 26조 3,841억원
  -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대비 6.5% 증가한 22조 307억원
  -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대비 3.4% 증가한 4조 3,533억원

**제 2 장 학교교육의 중점추진시책**

**1. 학교급식의 운영 및 개선**

학교급식은 1990년 이후부터 국가적인 관심사로 추진되어 급속하게 확대되었으나 위생·안전문제 등이 대두되었다. 이에 따라 2000년부터는 학교급식의 정착과 함께 급식의 질 개선에 역점을 두고 있다.

2004년말 현재 학교급식을 실시하고 있는 초등학교수는 5,580개교 중 5,572개교이며, 1일 급식학생수는 4,106천명 중 3,872천명이다. 학교급식을 실시하는 중학교수는 2,890개교 중 2,829개교이며, 1일 급식학생수는 1,838천명이다. 고등학교 급식학교수는 2,078개교 중 2,052개교이며, 1일

급식학생수는 1,496천명에 이른다.

〈표 4-2-1〉 학교급식 실시 현황(2004년) (단위: 교, 명)

구분	학교수(교)			학생수(천명)			운영형태(교)	
	전체	급식	%	전체	급식	%	학교급식	위탁급식
초등학교	5,580	5,572	99.9	4,106	3,872	94.3	5,550	22
중학교	2,890	2,829	97.8	1,940	1,838	94.7	2,041	788
고등학교	2,078	2,052	98.7	1,743	1,496	85.8	1,073	979
특수학교	141	133	94.3	23	22	95.7	129	4
계	10,689	10,586	99.0	7,812	7,228	92.5	8,793	1,793

주: 운영형태별

- 학교급식 8,793교(83.1%): 자체조리 6,578(74.8%), 공동조리 2,215(25.2%)
- 위탁급식 1,793교(16.9%): 교내조리 1,531(85.4%), 외부운반 262교(14.6%)

자료: 교육인적자원부

급식운영 형태별로는 학교설립경영자가 직접 운영하는 학교급식(직영급식)이 8,793교(83.1%)이고, 학교급식공급업자를 통하여 급식을 하는 위탁급식은 1,793교(16.9%)이다. 초등학교는 대부분 학교직영급식을 실시하고 있으나, 중·고등학교의 경우는 1997년 학교급식법 개정으로 위탁급식이 도입됨에 따라 일부는 위탁급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2. 고등학교 교육의 다양화**

가. 학교설립 및 운영의 다양화

고등학교 교육의 양적인 증가는 당장의 산업화 요구에 따른 교육인구 확대만을 추구한 결과로서 교육내용이나 방식이 매우 획일화되어 있어 다양한

교육적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고등학교 단계의 교육을 다양화하기 위한 노력이 1995년에 발표된 5·31 교육개혁 방안에 반영되었으며, 이후 꾸준히 추진되어 왔다.

이를 위한 첫 번째 시도는 고교설립 준칙주의 정책의 시행이다. 이것은 학교의 설립 기준을 대폭 완화함으로써 다양한 교육을 할 수 있는 새로운 학교의 설립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것으로 '고등학교이하각급학교설립·운영 규정'에 반영되었다. 이어 1997년에는 이러한 규정을 바탕으로 전문적인 분야의 인재양성 또는 다양한 체험을 바탕으로 인성중심의 교육(대안교육)을 목표로 하는 '특성화 고등학교' 제도의 입법화가 추진되어 1998년에 처음으로 7개의 특성화 고등학교(직업분야 1, 대안교육분야 6)가 개교하였다. 특성화 고등학교는 꾸준히 증가하여 2004년 현재 86개교(직업분야 64, 대안교육분야 22(2004. 3. 1 현재))가 운영되고 있다.

특성화 고등학교 외에도 종전부터 운영되어 오던 특수목적 고등학교를 다양화시키려는 시도가 이루어졌다. 이에 따라 1997년에 부산 국제고등학교가 개교하였다.

한편 새로운 학교를 설립하는 방식이 아니라 기존의 학교를 다양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되었다. 그것은 학교 운영과 관련된 일부 법령 규정의 적용을 유보함으로써 학교교육의 자율성과 다양성을 대폭 강화하려는 것인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은 이러한 학교를 '자율학교'로 명명하고 있다. 자율학교는 교육과정 운영과 교과용도서 활용, 교장이 자격의 유무에 구애받지 않고 취임할 수 있는 등의 자율성을 지니며, 1999년에 14개의 학교(대안학교 6, 예체능 특수목적고 7, 일반 예술고 1)가 3년 시한으로 자율학교로 지정되어 현재 83개교의 학교가 지정·운영되고 있다.

이 밖에도 실업계 고등학교의 교육과정 운영을 자율화하기 위한 교육과정 자율운영시범학교 운영, 통합고등학교의 시범 운영, 그리고 아직 계획단계

이기는 하지만 자립형 사립고등학교의 도입방안 검토 등을 통한 고등학교 교육의 다양화가 추구되었다. 이러한 다양화 시책은 한편으로는 학생들의 다양한 교육적 요구에 부응하여 학교 부적응이나 중도탈락의 가능성을 줄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학교교육이 급변하는 사회적 요구에도 부합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 나. 실업교육의 다양화·내실화

다양한 산업사회의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실업계 고등학교 체제를 경쟁력 있는 체제로 변화시켜야 하는데, 이는 다양화 및 내실화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

우선 다양화 측면을 살펴보면, 경쟁력있는 기존의 실업계 고등학교에 대해서는 학과 개편이나 교원 연수, 노후 기자재 대체 등의 지원을 계속하고, 소규모 특성화고등학교를 확대하고 있으며, 국가 기간산업 분야의 인력 양성을 위하여 국·공립학교를 중심으로 특수목적고등학교를 지정 운영하고 있다. 또한 인문교육과 실업교육의 통합적 운영을 통하여 진학과 취업을 적절하게 준비할 수 있는 통합형 고등학교를 시범운영하고 그 결과를 일반화하기 위하여 준비하고 있다.

다품종 소량생산체제에 맞는 다양한 인력을 양성하는 특성화고등학교 설립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2004년 현재 전국적으로 64개의 직업분야 특성화 고등학교가 설립·운영되고 있는데, 일반 고등학교 교육에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특수한 분야에 취미나 소질을 가진 학생들을 대상으로 특성화된 전문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특수목적고등학교의 경우 농업계 11개교, 공업계 22개교, 수산계 8개교 등 모두 41개교가 해당 산업분야의 인력 양성을 위하여 지정·운영되고 있

으며, 통합형 고등학교는 주로 농어촌 지역의 소규모 학교를 중심으로 10개 교가 시범 운영 중이다. 이외에도 산업사회 수요와 직결되는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산학연계 시범학교를 운영하고 있으며, 학생들의 창업 및 취업 마인드 제고를 위하여 학교기업 실험학교도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내실화 측면에서는 단위학교 교육과정 운영의 자율성을 대폭 확대하기 위하여 희망하는 학교에 대하여 일정한 심사를 거쳐 자율학교의 지위를 부여하고 있으며, 교원과 관련하여 교원의 복수 및 부전공 자격 연수를 지원하고, 전문교과 교원 자격증의 통합/광역화 추진과 더불어 전문교과 교원의 산업체 현장 적응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산업체 특별연수 등을 실시하고 있다.

시설·설비 측면에서는 첨단 실험·실습 기자재를 갖춘 지역별 공동실습소를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학교 단위 자율예산제도를 확립하고 학교기업 실험학교를 운영하여 학교재정을 자체적으로 확충할 수 있는 방안 등을 마련하고 있다.

전체적으로 학력 수준이 높아지면서 과거에는 실업계 고등학교 졸업자가 취업하던 분야에 대부분 대학졸업자들이 하향 취업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와 같은 하향 취업 현상은 고등학교 졸업자들의 무조건적인 대학 진학의 원인이 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을 개선하기 위하여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고등학교 졸업 수준의 직무능력이 필요한 업종에 대해서는 실업계 고등학교 졸업자를 채용할 수 있도록 해당 기관 및 관련부처에 권유하고 있다. 또한 중앙 및 지역단위의 경제단체 및 노조단체 등과의 파트너십을 강화하고 협의 체제를 구축하여 고졸취업자의 작업환경, 임금 등 근로조건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산업체의 직무내용과 학교 교육내용의 불일치를 극복하기 위하여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시 지역 산업체의 전문가가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중앙 및 지역 단위의 '진로정보센터' 운영을 통하여 졸업생의 취업 및 진학 지도를 강화하고 있다.

현장실습은 지역 및 학교의 여건에 따라 운영 시기 및 방법을 다양화되고 직업체험 등 교육적인 목적으로만 실시하도록 하고 일과 학습을 연계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 3. 특수교육 중점추진 시책

2005년 6월 현재 142개 특수학교에서 23,449명의 장애학생이 특수교육을 받고 있고, 3,725개 일반학교에 설치된 4,676개 특수학급에서 29,803명의 장애학생이 특수교육을 받고 있으며 5,110명의 장애학생이 일반학급에 배치되어 교육을 받고 있다.

우리나라 특수교육의 정책방향은 장애학생이 일반학생과 함께 생활하고 공부하는 통합교육에 두고 있으며, 특수교육 운영의 기본방향을 장애학생 교육기회 확대, 통합교육 기반조성 및 교육의 내실화 도모, 특수교육 지원 서비스 확대 및 지원체제 강화, 장애인 고등교육 기회 확대 및 평생교육 지원 강화에 역점을 두어 추진하고 있다.

특수교육 대상학생에게 지역별·학교과정별 균형적인 교육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2004년에 특수학교 4개교, 특수학급 264개를 증설하였으며 2007년까지 특수학교는 2009년까지 민간자본유치를 통해 15개교를 신설할 계획이며 특수학급은 795개를 증설할 계획이다. 특수학교 신설은 특수학교가 없는 농어촌지역 등에 우선 신설하되, 단일 장애영역의 학교보다 여러 장애영역을 대상으로 하는 특수학교 설립·운영을 권장하고 있으며 특수학급은 유치원과 고등학교 특수학급을 지역별로 증설하여 학교과정별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할 전망이다. 또한 예비교원들의 특수교육에 대한 이해

제고를 위해 고등교육법 개정을 통하여 40여개 국·공립대학 부설학교에 특수학급 설치를 의무화할 예정이다.

특수교육진흥법 개정(2005.3.24)으로 장기입원 긴장장애 학생을 특수교육대상이 될 수 있는 장애범수에 포함시켜 지원하게 되었으며 2005년도에 5개의 병원학급을 설치하였고 향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특수교육진흥법 시행령 개정(2005.2.28)에 따라 장애학생 무상교육 범위에 입학금, 수업료, 교과용 도서대 이외에 학교급식비 및 학교운영지원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특수교육 정책수립의 기초자료 확보를 위한 실태조사를 5년마다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고(특수교육진흥법 개정, 2005.3.24) 2005년 취학유예아동 실태조사에서 장애아동이 전체 취학유예 아동의 18.8%(8,436명)를 차지하여 유아특수교육기관의 지속적 확충 및 무상교육 홍보를 통한 취학유예 장애아동 취학독려를 계속하고 동시에 취학유예아동 교육지원 대책을 강구할 계획이다.

## 제 3 장 평생교육 및 교육복지

### 1. 평생학습도시 사업과 전국 평생학습축제

지식기반사회로 이행함에 따라 평생학습이 중요하나, 평생학습의 기반은 취약한 실정이다. 우리나라 성인의 평생학습 참여율은 17.2%(2000년, 통계청)로 OECD 주요국의 평균 참여율 35%의 절반 수준에 못 미친다. 교육예산 대비 평생교육에 투자되는 예산은 0.04%(22조 307억원 : 99억원, 04년 일반회계 기준)로 평생학습에 대한 국가 차원의 지원도 미흡하다. 이에 평생학습의 중요성을 국민들에게 널리 알리고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평생학습도시(Lifelong Learning City) 조성 사업과 평생학습축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평생학습도시 조성 사업은 지역 주민들의 교육 욕구 충족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학교, 공공도서관, 주민자치센터, 구민회관 등 다양한 기관에서 개별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평생교육 프로그램들을 협력과 공유를 통해 교육 서비스의 질을 향상하고 고객의 만족을 높이기 위한 취지에서 2001년에 시작되었다. 2004년에는 기존의 11개 도시에 추가로 8개 도시를 선정하여 19개 도시로 그 사업 규모를 확대하였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충청남도 금산군, 전라북도 전주시, 경기도 이천시, 전라남도 목포시, 경상북도 칠곡군, 충청북도 청주시, 경상남도 창원시가 평생학습도시로 선정되었고, 전라남도 순천시를 중심으로 평생학습도시간의 자율적 협의제도 구성되어 발전 방안을 모색 중에 있다. 일본은 140여 개, 영국은 40여 개 도시가 학습도시를 선언하며, 지역의 학습 문화 확산에 주력하고 있다.



3회째를 맞이한 전국 평생학습축제(Lifelong Learning Festival)는 올해 제주에서 “평생학습의 등불을 밝히자 : 노영 나영 평생학습, 함께 하는 배움 세상”이라는 주제로, 2004년 9월 21~24일에 개최되었다. 교육인적자원부와 한국평생교육총연합회가 주최하고, 제주도 교육청, 제주도, 한국교육개발원이 주관한 이 행사는 4일간 연 인원 21만 명이 참여하여 평생학습의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나누고, 직업능력 개발 사례를 전파하였다.

## 2. 학점은행제 및 통합학위제

학점은행제는 학교 안팎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형태의 학습을 학점으로 인정받고, 이것이 누적되어 일정기준을 충족하면 학위취득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열린교육사회, 평생학습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제도이다. 1998년에 도입된 이 제도는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법률 제6434호)에 근거를 두고 시행되고 있다.

학점은행제를 통해 학점 및 학위를 취득하고자 하는 학습자나 학점은행제 학습과목을 평가인정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교육훈련기관은 교육인적자원부가 고시하는 ‘표준교육과정’ 및 한국교육개발원이 고시하는 ‘교수요목’을 적용해야 한다. 표준교육과정은 지금까지 10차에 걸쳐 학사과정 94과정, 전문학사과정 92과정 등 총 186과정(전공)과 중요무형문화재 표준교육과정은 7개학과 119개 과정이 고시되었고, 이에 따른 교수요목은 12차에 걸쳐 교양 326과목, 전공 3,314과목과 중요무형문화재 관련 교수요목 4,753과목 등 총 8,393과목이 고시되어 운영 중이다.

2004년 10월 현재, 평가인정된 교육훈련기관은 434개 기관이며, 평가인정된 학습과목은 13,009과목이다. 교육기관은 주로 대학·전문대학부설 평생교육원(187기관, 6,516과목), 학원(81기관, 1,465과목), 직업훈련원(75기

관, 2,943과목), 전공심화과정, 기능대학, 고등기술학교, 특수학교 등이다. 학위수어자는 24,520명(학사 8,915명, 전문학사 15,605명)에 학습자 등록은 총 116,877명이다. 또한, 학점은행제가 성인학습자들의 평생학습 제도로 정착될 수 있도록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의 개정(2001. 3) 및 동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의 개정(2001. 6)을 통해 원격교육과 국가 공인 자격의 학점인정도 가능케 하는 등 수요자 중심의 학습기회를 확대하고, 2002년 7월 중요 무형문화재 보유자와 진수자 등에 대해 학점은행제에 의한 학점과 학위를 받을 수 있도록 그 기준이 되는 중요무형문화재 표준교육과정·교수요목을 고시함으로써 중요 무형문화재 보유자 및 분하생에게 학력·학점을 인정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표4-3-1〉 학점은행제 실시 현황

(단위 : 명)

수여시기	'99. 8	'00. 2	'00. 8	'01. 2	'01. 8	'02. 2	'02. 8
학 사	25	111	143	267	396	718	609
전문학사	9	539	227	1,462	334	2,562	561
계	34	650	370	1,729	730	3,280	1,170

수여시기	'03. 2	'03. 8	'04. 2	'04. 8	계
학 사	1,288	1,267	2,236	1,855	8,915
전문학사	4,398	847	3,980	686	15,605
계	5,686	2,114	6,216	2,541	24,520

자료 : 교육인적자원부 「평생교육백서」 2004

학점은행제는 양적인 면에서 급격하게 팽창해 왔지만, 질적인 면에서 이에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따라서 질 관리 방안을 마련(2002. 11), 평가인정과정 및 사후관리에 대한 질 관리, 교육훈련기관 학습과목 운영 및 학사관리에 대한 질 관리, 학습자 및 교육훈련기관에 대한 행정적 지

원을 통한 질 관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향후 직업교육프로그램 확대 방안도 마련될 예정이다.

학점은행제는 여러 가지 사정으로 고등교육기회를 놓친 성인학습자들을 위한 대안적인 고등교육제도라는 점에서 일반 학교교육과 차별화된 직업관련 경험학습 및 프로그램의 강화가 필요하다. 출석수업 방식의 경직된 교육이 아닌 시간적, 공간적 제약을 해소할 수 있는 원격교육을 통한 학점인정 방안이 마련(03. 8)돼 2004년 3월부터 2년간 시범 운영하고 있다. 또한 국가자격 이외에 국가공인 민간자격에 대한 학점인정 방안도 마련되어, 2004년 하반기부터 시행하고 있다.

독학학위제는 학습자가 독학시험 또는 시험면제과정 등으로 학습한 결과를 학위취득시험으로 인정받고 이를 통해 학위를 취득하는 제도이며, 현재까지 학위수여 인원은 총 7,986명이다.

〈표 4-3-2〉 독학학위 수여 현황 (단위: 명)

연도별	'93~'96	'97	'98	'99	'00	'01	'02	'03	'04	계
인원	1,713	789	744	1,011	618	508	755	904	944	7,986

자료: 교육인적자원부 「평생교육백서」 2004

학점은행제도와 독학학위제도는 성인들을 위한 고등교육기회의 확대라는 목적을 가지고 국가가 운영하는 학위제도라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으며, 학점은행제에서는 독학학위제에 의한 시험합격 및 면제과정 이수결과를 학점원(學點源)으로 인정함으로써 현재 연계가 이루어지고 있다.

### 3. 소외계층 평생교육 지원

#### 가.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지원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은 평생교육법 제20조(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를 근거로 하여 운영이 된다.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은 경제적 이유 등 개인 사정으로 인해 중·고등학교에 진학하지 못한 정규 학교 입학 탈락자, 근로 청소년, 성인, 출소자 등에게 정규 학교 교육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취지에서 운영되고 있다. 현재 중학교 과정 2개교, 고등학교 과정 21개교, 중·고등학교 병설 20개교가 설치되어 있고, 매년 8,500여 명이 졸업을 하고 있다.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중학교 무상의무교육 실시에 따라,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중학교 과정의 학생들에게도 입학금 및 수업료 전액이 국고 지원되고 있고, 교직원 인건비 및 실험실습 기자재 구입이 국고 지원되고 있다. 2004년 1월 평생교육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에서 초등학교 졸업 학력을 취득할 수 있게 되었다. 2005년부터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지원 사업은 지방이양 사업으로 전환되어 지방비에서 안정적인 예산이 지원될 계획이다.

#### 나. 소외계층의 평생교육 지원

민간단체 등에서 운영하고 있는 노인·여성 대상의 분해 교육, 장애인 재활교육, 저소득층 직업교육 등 성인의 기초능력 함양을 위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발굴하여 지원하고 있다. 또한 고령사회에 대비해 노인의 직접 사회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제도로 만들어진 금빛평생교육봉사단은 55세 이상의 교원, 퇴직 공무원 등 전문직 퇴직자로 구성된 자원봉사단으로 2002년부터

전국적으로 운영·지원되고 있다. 금빛평생교육봉사단은 16개 지역평생교육정보센터를 중심으로 도서관, 복지시설, 학교 등에서 평생학습 지원 봉사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 4. 평생학습관

##### 가. 전국 평생학습관 현황

평생학습관은 평생교육법 제13조에 명시된 바와 같이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과 평생교육에 대한 정보수집” 기능을 위해 교육감이 설립한 기구이다. 다시 말해, 시·군·구나 읍·면·동 단위에 설치된 평생학습관은 지역단위의 평생학습관으로서 주민들을 대상으로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과 아울러 평생교육에 관한 연구·연수 및 정보제공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

전국 각 지역에 설치된 270개의 평생학습관들 중에서 독립 평생학습관은 마포평생학습관 등 서울에 5개의 학습관을 비롯하여 대전광역시, 강원도, 충청남도 등 전국에 총 16개가 설치되어 있다. 이는 평생학습관 전체의 5.9%를 차지하고 있으며, 가장 적은 수의 유형이다. 그리고 교육청 산하 기관은 전체 학습관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유형으로 전국에 총 177개가 있다. 이는 전체 평생학습관 유형의 65.6%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교육청 외 기관은 총 77개가 있다. 이 유형은 전체 평생학습관의 28.5%를 차지하고 있다. 자세한 현황은 <표 4-3-3>과 같다.

<표 4-3-3> 지역·유형별 평생학습관 현황

구분	독립 평생학습관	교육청 산하 기관	교육청 외 기관	계
서울특별시	5	-	-	5
부산광역시	-	10	-	10
대구광역시	-	4	4	8
인천광역시	-	8	8	16
광주광역시	-	4	11	15
대전광역시	1	1	19	21
울산광역시	-	4	-	4
경기도	-	12	28	40
강원도	5	17	-	22
충청북도	-	15	1	16
충청남도	2	16	-	18
전라북도	1	14	2	17
전라남도	1	23	-	24
경상북도	-	23	1	24
경상남도	1	21	-	22
제주도	-	5	3	8
계	16(5.9)	177(65.6)	77(28.5)	270(100.0)

자료 : 교육인적자원부 「평생교육백서」 2004

또한 평생학습관은 지역 특성에 따라 시·군·구 단위 또는 읍·면·동 단위로 평생학습관을 신설하거나 도서관, 시·군·구민회관, 문화원 등 기존의 평생교육시설을 활용하여 운영되고 있다. 그리고 그 중 도서관에 지정된 경우가 57.4%로 가장 많으며 17개의 평생학습원, 평생교육관, 평생학습관, 평생교육정보관 등 독립 평생학습관이 설립되어 운영되고 있다. 그밖에는 대학, 문화원, 주민자치센터, 초·중등학교, 학생회관 등 다양한 기관들이 평생학습관으로 지정되어 있다.

## 다. 평생교육사 양성과정

평생교육사의 자격은 1급, 2급, 3급으로 구분되며, 각 평생교육사 자격 구분은 대학(원) 혹은 전문대학에서의 평생교육사 양성과목 이수와 실습 및 현장경력을 중심으로 하였다. 평생교육사의 자격은 교육기관 중심의 교육이수를 통해서만이 아니라, 현장 경력을 중심으로 취득할 수 있는 가능성을 새롭게 열어두며, 현장 경력이 배제된 상태에서 1급 자격증을 취득하기 어렵게 제한한 점도 특징이다. 또한 보수교육을 받지 않고서 상위급수로의 이동이 불가능하게 제한하고 있다.

평생교육사 1급, 2급, 3급의 자격 취득 대상자의 자격 요건 및 등급별 과정, 이수학점 등의 내용은 <표 4-3-4>와 같다. 평생교육사 양성은 평생교육법 제17조(대학)나 제18조(양성기관)에 의거해 평생교육 관련 과목을 일정학점 이상 이수한 자에게 평생교육사 자격을 부여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대학에서의 신규 인력의 양성과 현장 재직자를 위한 양성 과정의 두 가지 방식으로 양성이 추진되고 있는 것이다.

<표 4-3-4> 평생교육사 자격 취득 요건 및 등급별 과정, 이수학점

등급	대상 및 자격조건	이수학점(시간)	교육기관
1급	평생교육관련분야 박사학위취득자		대학원
	평생교육사 2급 자격 + 평생교육업무 3년	210시간	양성기관
	교장 및 교감자격증 소지자	210시간	양성기관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설치·경영자 + 경력 5년	210시간	양성기관
2급	5급이상 공무원 + 경력5년	210시간	양성기관
	대학원 재학생	14학점	대학원
	대학과정 재학생	20학점	대학
	대학과정 졸업자	20학점(300시간)	대학, 양성기관
	전문대학생	30학점	전문대
	전문대학과정 졸업자	30학점(450시간)	전문대, 양성기관
	평생교육사 3급 + 평생교육업무 3년	10학점(150시간)	학교, 양성기관
3급	대학 졸업자 + 평생교육업무 3년	14학점(210시간)	학교, 양성기관
	학교교원 + 3년	14학점(210시간)	학교, 양성기관
	전문대학과정 재학생	20학점	전문대
	전문대학과정 졸업자	20학점(300시간)	전문대, 양성기관
	고등학교과정 졸업자 + 평생교육업무 3년	20학점(300시간)	전문대, 양성기관
	공무원 + 평생교육업무 2년	14학점(210시간)	전문대, 양성기관

자료: 교육인적자원부 「평생교육백서」 2004

## 5. 학교를 통한 평생교육

### 가. 청소년 수련활동

일반적으로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평생교육활동은 특별활동을 통하여 이루어지며 각급 학교의 실정에 맞게 다양하게 전개되고 있다. 또한 이러한 활동은 학교 자체의 계획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학교 밖의 다양한 청소년 관계 단체들과 연계되어 이루어지고 있다. 즉, 세계적으

로 활동망을 구축하고 있는 스카우트 활동, 자랑스런 한국인의 육성을 목적으로 하는 한국청소년연맹의 아람단(초등학교), 누리단(중학교), 한별단(고등학교) 학생들의 해양에 대한 탐구심을 높이고 아울러 해양훈련에 의한 해양청소년단, 과학적 탐구심을 향상시키기 위한 우주소년단 등 다양한 청소년 단체들이 학교와 연계되어 있다.

#### 나. 지역주민 대상의 평생교육활동

학교에서 시행되는 평생교육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교육인적자원부와 시·도 교육청의 행·재정적 지원에 의해 학교에서의 평생교육이 실시되고 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학교의 우수한 시설과 인력을 활용하여 지역주민을 위한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각 시·도에 평생교육연구학교 운영예산을 지원하고 있다.

둘째, 학교에서 실시되고 있는 평생교육 프로그램은 강연과 실습·실험 등의 방법이 주가 되며 교육장소는 대부분 학교의 교실, 시설을 활용하고 있다. 학습시간은 아동 교육시간을 피하여 방과후나 방학 등의 시간을 이용하며, 주로 여성들이 참여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여성의 의식·능력개발과 아울러 여가 시간 활용에 공헌하고 있다.

#### 다. 방과후 활동

평생교육이 개인의 소질·적성·능력에 따라 자기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며 행복한 삶을 위한 노력이라면, 방과후 활동 역시 평생교육력을 기르기 위한 학교교육의 준비과정으로 받아들여진다. 학교 교육활동의 한 부분으로 방과후 활동을 도입한 본래의 취지는 정해진 교과 내용의 울타리 안에

서 정해진 진로를 걸어야 하는 구속에서 벗어나, 교과 수업만으로 기대하기는 어려운 전인교육의 성과를 추구하기 위한 다채로운 활동을 전개하려는 데 있다. 또한 학생의 입장에서 보면, 내적인 흥미를 바탕으로, 공식적인 학년이나 학급의 경계를 벗어나 동호의 연대감 속에서, 다양한 배경의 학생들과 만나 교사의 도움을 받으며, 공부 외의 다른 잠재력을 확인하고 계발하는 계기가 된다.

#### 라. 학교시설 개방

학교 평생교육에 있어서 제일 쉽게 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학교시설의 개방이다. 학교시설 개방에 관련된 법규를 보면 초·중등교육법 제11조(학교시설 등의 이용)에서는 “모든 국민은 학교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교육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학교시설 등을 이용할 수 있다”라고 하였으며, 지방자치법 제13조(주민의 권리)의 제①항에서는 “주민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속지방자치단체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권리와 그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균등하게 행정의 혜택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라고 하여 자치단체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되어 있다.

평생교육법 제②항에서는 “각급 학교의 장은 평생교육의 실시자가 당해 학교의 도서관, 박물관 기타 시설을 평생교육을 위하여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평생교육을 개설하면 여기에 대한 학교의 시설을 적극적으로 개방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2조(공공시설의 이용) “평생교육을 실시하는 자는 평생교육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공시설의 관리자에 대하여 당해 시설을 관리하는 직원의 지원 및 장비의 이용에 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라고 하여 학교시설을 지역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

도록 하였다.

1997년도 교육부의 「평생교육백서」에 의하면 우리나라 전체 학교 중에서 98.8%가 학교시설을 개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러한 수치는 학교가 개방할 수 있는 교실, 운동장 및 수영장, 강당 등의 체육시설을 비롯하여 도서관, 박물관, 예절실, 교실 중에서 주로 운동장 개방을 의미하고 있다.

## 6. 학교시설 복합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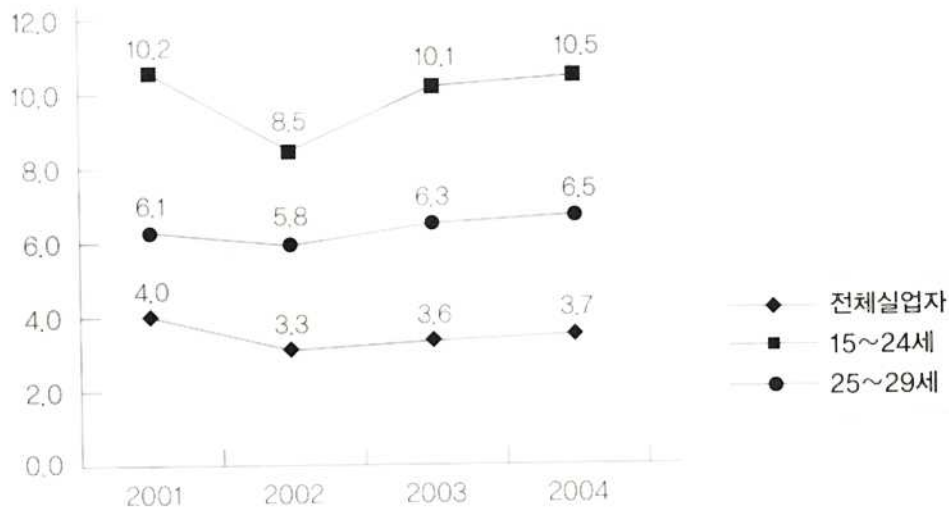
서울시교육청은 2001년 1월 5일 학교부지 이용 효율화, 교육 정보화,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해 학교 내에 학생·교사·지역 주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공공문화시설을 건립하는 '학교시설 복합화 추진계획'을 발표하였다. 교육인적자원부는 2001년 4월 13일 열린 정부혁신추진위원회 제7차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학교 용지 확보 등 교육환경 개선방안'을 확정, 추진키로 했다. 개선방안에 따르면 학교 부족과 과밀학급문제 해소를 위해 대도시 지역의 경우, 학교 신·증설 때 운동장 없이 고층 건물에 실내 체육시설을 갖춘 '빌딩형 학교'와 12~18학급 규모의 '소규모 학교' 건축을 확대한다고 한다.

또 1개 부지에 학교급이 다른 2개 학교가 들어서는 '단지형 학교'와 공공기관 또는 민간자본 유치를 통해 수영장이나 체육관 등 사회체육시설과 학교 건물을 복합화한 '복합형 학교' 건축도 늘려가고 있다. 현재 '빌딩형 학교'는 서울 독립문초교(지상 6층, 지하 1층)를 시작으로 문을 열었으며, '복합형'은 성동구 금호초교가 성동구청과 함께 220억원을 들여 164대 규모의 지하공공주차장과 수영장, 체육관, 유아방 등의 공공문화시설 건립하였다. 이외에도 성동구 성수2가 성수초교에 지역정보도서관, 종로구 창신1동 창

신초등학교에 공공주차장과 지역문화센터, 성동구 행당동 무학여자중학교와 송파구 문정동 문정고등학교에 지역문화센터 건립을 추진하였다. '단지형'으로는 성수고등학교·경동중학교 등이 설립하였으며, 소규모 학교는 경기도 부천이나 성남 등 일부 도시에서 설립하였다.

# 청소년과 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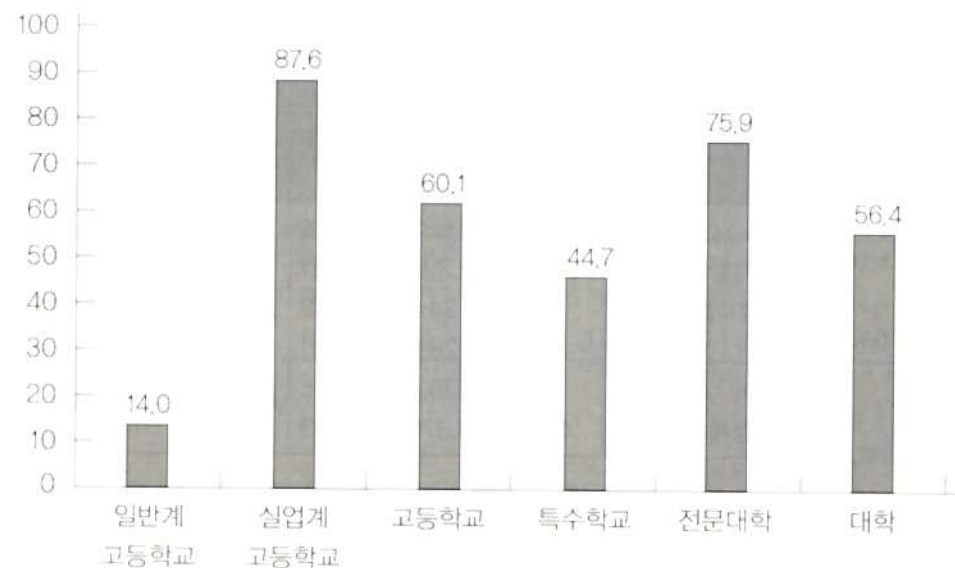
2004년도 전체 실업률은 3.7%로 2003년에 비해 0.1%p 증가하였고, 15~24세의 실업률은 10.5%로 2003년에 비해 0.4%p 증가하였으며, 25~29세의 실업률은 6.5%로 2003년도에 비해 0.2%p 증가하였다.



청소년 실업률 추이(%)



2004년도 학교졸업자 취업률을 보면, 일반계고등학교가 14.0%, 실업계고등학교가 87.6%, 특수학교가 44.7%, 전문대학이 75.9%, 대학이 56.4%였다.



학교졸업자 취업률 추이(%)

## 제 1 장 청소년 고용 상황

### 1. 청소년 경제활동인구

15~24세 청소년의 경제활동인구는 2002년 이후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2004년에는 221만 2천명으로 2003년보다 1만 9천명(-0.9%) 감소하였다. 그러나 청소년인구의 지속적인 감소로 인해서 경제활동참가율은 2003년에 비해 0.5% 증가하였으며, 비경제활동인구는 413만 6천명으로 전년대비 14만 7천명(-3.4%) 감소하였다.

〈표 5-1-1〉 15세 이상 인구 및 경제활동인구 추이

구 분	2001	2002	2003	2004	전년대비	
					증 감	증감률
● 청소년인구	6,802	6,663	6,514	6,348	166	-2.5
경제활동인구	2,280	2,293	2,231	2,212	-19	0.9
경제활동참가율	33.5	34.4	34.3	34.8	0.5p	-
남 자	27.8	28.6	28.1	28.8	0.7p	-
여 자	38.5	39.4	39.6	40.1	0.5p	-
비경제활동인구	4,522	4,370	4,283	4,136	-147	3.4

주 1) 경제활동인구 추이: 15세 이상의 자의 추이(자료: 청소년을 15~24세로 하였으며, 현역군인 등은 제외되었음)  
 2) 경제활동참가율: 경제활동인구/15세 이상 인구×100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연보」



2004년 청소년 경제활동인구를 성별로 보면, 남자가 85만 2천명으로 2003년의 85만 3천명에 비해 1천명(-0.1%) 감소하였고, 여자는 136만명으로 2003년의 137만 8천명에 비해 1만 8천명(-1.3%) 감소하였다.

이를 연령별로 보면 중고생 연령계층인 15~19세 연령계층은 2003년 31만 2천명에서 2004년 30만 1천명으로 1만 1천명(-3.7%) 감소하였고, 대학생 연령계층인 20~24세 연령계층은 2003년 191만 9천명에서 2004년 191만 1천명으로 8천명(-0.4%) 감소하였다.

〈표 5-1-2〉 연령계층별·성별 청소년 경제활동인구 추이

구 분	2001		2002		2003		2004		전년대비
	인구	구성비	인구	구성비	인구	구성비	인구	구성비	
15~24세	2,280	100.0	2,293	100.0	2,231	100.0	2,212	100.0	-0.9
남 자	879	38.6	885	38.6	853	38.2	852	38.5	0.1
여 자	1,401	61.4	1,407	61.4	1,378	61.8	1,360	61.5	-1.3
15~19세	417	18.3	356	15.5	312	14.0	301	13.6	-3.7
남 자	196	8.6	163	7.1	136	6.1	135	6.1	-0.5
여 자	221	9.7	193	8.4	176	7.9	165	7.5	-6.2
20~24세	1,863	81.7	1,937	84.5	1,919	86.0	1,911	86.4	-0.4
남 자	683	30.0	723	31.5	717	32.1	716	32.4	-0.1
여 자	1,180	51.8	1,214	52.9	1,202	53.9	1,195	54.0	1.6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연보」

2004년 청소년 계층의 경제활동참가율은 34.8%로 2003년(34.3%)에 비해 0.5%p 증가하였으며, 성별로 보면 남자는 0.7%p 증가한 28.8%, 여자는 0.5%p 상승한 40.1%로 나타났다.



〈표 5-1-3〉 연령계층별·성별 청소년 경제활동참가율 추이

(단위: %)

구 분	2001	2002	2003	2004	전년대비
남 자	27.8	28.6	28.1	28.8	0.7
여 자	38.5	39.4	39.6	40.1	0.5
15~19세	11.7	10.7	9.9	9.8	-0.1
남 자	10.8	9.5	8.4	8.6	0.2
여 자	12.7	11.9	11.4	11.1	-0.3
20~24세	57.3	58.2	57.3	58.3	1.0
남 자	50.7	52.1	51.0	52.1	1.1
여 자	62.0	62.6	61.8	62.8	1.0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연보」

## 2. 청소년 비경제활동인구

2004년 15~24세 청소년 비경제활동인구는 413만 6천명으로 2003년에 비해 14만 7천명(-3.4%) 감소하였다.

연령별로는 15~19세 연령계층의 비율(67.0%)이 20~24세 연령계층(33.0%)보다 비경제활동인구가 높다. 2004년의 15~19세 연령계층의 비경제활동인구는 277만명으로 2003년에 비해 8만 3천명(-2.9%) 감소하였고, 20~24세 연령계층은 136만 6천명으로 전년도에 비해서 6만 4천명(-4.5%) 감소하였다.

성별로는 남자 210만 5천명(50.9%), 여자 203만 1천명(49.1%)으로 남자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났는데, 2001년 이후부터 남자청소년의 비경제활동인구가 여자청소년 비경제활동인구보다 점차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표 5-1-4〉 청소년 비경제활동 인구 추이

(단위: 천명, %)

구 분	2001		2002		2003		2004		전년대비
	인구	구성비	인구	구성비	인구	구성비	인구	구성비	
15~24세	4,522	100.0	4,370	100.0	4,283	100.0	4,136	100.0	-3.4
남 자	2,280	50.4	2,211	50.6	2,177	50.8	2,105	50.9	-3.3
여 자	2,242	49.6	2,159	49.4	2,106	49.2	2,031	49.1	-3.5
15~19세	3,134	69.3	2,981	68.2	2,853	66.6	2,770	67.0	-2.9
남 자	1,617	35.8	1,546	35.4	1,490	34.8	1,447	35.0	-2.9
여 자	1,517	33.5	1,435	32.8	1,363	31.8	1,323	32.0	-2.9
20~24세	1,388	30.7	1,389	31.8	1,430	33.4	1,366	33.0	-4.5
남 자	663	14.7	665	15.2	688	16.1	658	15.9	-4.3
여 자	724	16.0	724	16.6	743	17.3	708	17.1	-4.7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연보」

청소년 비경제활동인구의 활동 상태별 구성비를 살펴보면, 통학이 85.3%로 대부분을 차지하였으며, 이 중 남자가 85.4%, 여자가 84.7%로 남자가 소폭 높게 나타났다.

연령계층별로는 중고생 연령계층인 15~19세는 통학이 거의 대부분인 95.6%를 차지하였으며, 성별로는 남자가 94.8%, 여자는 96.5%로 여자가 소폭 높게 나타났다. 대학재학 연령계층인 20~24세에서는 통학이 64.3%를 차지하였는데, 남자가 66.1%, 여자는 62.6%로 남자가 여자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5-1-5〉 청소년 비경제활동인구의 성별 및 활동 상태별 현황(2004년)  
(단위: 천명, %)

구 분	비 경제		가사·육아		통 학		기 타	
	활동인구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15~24세	4,136	100.0	143	3.5	3,527	85.3	466	11.3
남 자	2,105	100.0	7	0.3	1,807	85.4	290	13.8
여 자	2,031	100.0	136	6.7	1,720	84.7	176	8.7
15~19세	2,770	100.0	12	0.4	2,649	95.6	109	3.9
남 자	1,447	100.0	3	0.2	1,372	94.8	72	5.0
여 자	1,323	100.0	10	0.8	1,277	96.5	36	2.7
20~24세	1,366	100.0	131	9.6	878	64.3	358	26.2
남 자	658	100.0	5	0.8	435	66.1	218	33.1
여 자	708	100.0	126	17.8	443	62.6	139	19.6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연보」

### 3. 청소년의 취업 현황

2004년도 15~24세 청소년 취업자는 198만 1천명으로 2003년의 200만 6천명에 비해 2만 5천명(-1.3%) 감소하였다. 청소년 경제활동인구 221만 2천명 중 89.6%가 취업한 것이고, 2003년 취업률 89.9%에 비하여 0.3%p 감소한 것이다.

전체 취업자 중 청소년이 차지하는 비율은 출산율 감소 및 청소년층의 진학을 상승 등에 기인하여 1999년에 9.7%이던 것이 그 이후 지속적인 감소를 보여 2004년에는 8.8%로 감소하였다.

〈표 5-1-6〉 연령계층별 취업자 추이  
(단위: 천명, %)

구 분	2001		2002		2003		2004		전년대비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총 취업자	21,572	100.0	22,169	100.0	22,139	100.0	22,557	100.0	1.9
15~24세	2,047	9.5	2,097	9.5	2,006	9.1	1,981	8.8	-1.3
25~29세	2,768	12.8	2,702	12.2	2,600	11.7	2,598	11.5	-0.1
30~39세	6,167	28.6	6,212	28.0	6,186	27.9	6,181	27.4	-0.1
40~49세	5,561	25.8	5,856	26.4	6,031	27.2	6,206	27.5	2.9
50~59세	2,959	13.7	3,098	14.0	3,174	14.3	3,334	14.8	5.1
60세 이상	2,071	9.6	2,204	9.9	2,142	9.7	2,257	10.0	5.4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연보」

2004년 15~19세 취업자는 25만 8천명으로 2003년의 27만 2천명에 비하여 1만 4천명(-5.0%) 감소하였고, 20~24세 취업자는 172만 2천명으로 2003년의 173만 5천명에 비하여 1만 3천명(-0.7%) 감소하였다. 성별로는

〈표 5-1-7〉 연령계층별·성별 청소년 취업자 추이  
(단위: 천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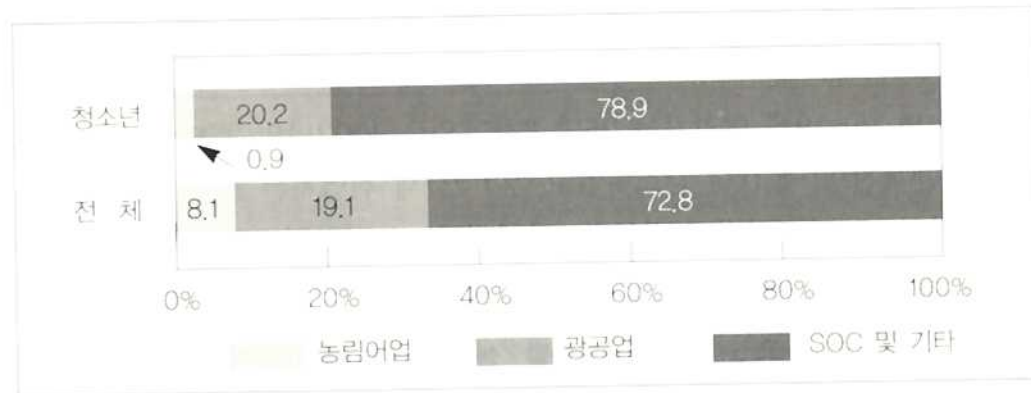
구 분	2001		2002		2003		2004		전년대비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15~24세	2,047	100.0	2,097	100.0	2,006	100.0	1,981	100.0	-1.3
남 자	767	37.5	794	37.9	752	37.5	748	37.8	-0.5
여 자	1,280	62.5	1,303	62.1	1,255	62.5	1,233	62.2	-1.7
15~19세	358	17.5	313	14.9	272	13.5	258	13.0	-5.0
남 자	166	8.1	141	6.7	117	5.8	115	5.8	-1.1
여 자	192	9.4	172	8.2	155	7.7	143	7.2	-7.9
20~24세	1,689	82.5	1,784	85.1	1,735	86.5	1,722	87.0	-0.7
남 자	601	29.4	653	31.1	635	31.7	632	31.9	-0.5
여 자	1,088	53.2	1,131	53.9	1,099	54.8	1,090	55.0	-0.9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연보」

남자는 4천명(-0.5%) 감소한 74만 8천명, 여자는 2만 2천명(-1.7%) 감소한 123만 3천명으로 나타났다.

2004년 청소년 취업자의 산업별 구성비는 농림어업이 0.9%, 광공업이 20.2%, 사회간접자본 및 기타 서비스업 78.9%로 나타나 전체 취업자에 비해 청소년 취업자가 사회간접자본 및 기타 서비스업부분에 집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5-1-1〉 산업별 취업자 구성비(2004년)



2004년 청소년 취업자의 지역별 증감을 살펴보면, 대도시 지역에서는 인천에서 청소년 취업자가 전년대비 가장 높은 증가율(4.5%)을 보인 반면, 대전이 가장 높은 감소율(-9.3%)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도별로는 경기지역에서 가장 높은 증가율(6.9%)을 보였으며, 전남지역이 가장 높은 감소율(-14.5%)을 보였다.

청소년 취업자는 50.1%가 7대 도시, 49.9%가 9개도에 분포하고 있었다. 청소년 취업자의 시도별 구성비를 보면, 서울이 23.7%로 가장 높고, 그 다

음이 경기도(22.2%), 부산(6.8%), 인천(6.3%) 등으로 수도권에 많이 분포하고 있었으며, 제주지역은 1.1%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5-1-8〉 지역별 청소년 취업자 추이

(단위: 천명, %)

구분	2001		2002		2003		2004		전년대비
	인원	구성비	인원	구성비	인원	구성비	인원	구성비	
전국	2,047	100.0	2,097	100.0	2,006	100.0	1,981	100.0	-1.3
7대도시	1,066	52.1	1,086	51.8	1,031	51.4	992	50.1	-3.7
서울	502	24.5	496	23.7	489	24.4	469	23.7	-4.1
부산	168	8.2	176	8.4	145	7.2	136	6.8	-6.6
대구	107	5.2	116	5.5	103	5.1	101	5.1	-1.6
인천	121	5.9	122	5.8	119	5.9	124	6.3	4.5
광주	62	3.0	62	3.0	62	3.1	58	2.9	-7.2
대전	65	3.2	67	3.2	65	3.3	59	3.0	-9.3
울산	41	2.0	45	2.1	48	2.4	46	2.3	-4.4
9개도	981	47.9	1,009	48.1	976	48.6	988	49.9	1.3
경기	405	19.8	448	21.4	445	22.2	475	24.0	6.9
강원	52	2.5	53	2.5	49	2.4	47	2.4	-3.5
충북	62	3.0	63	3.0	57	2.8	54	2.7	-6.0
충남	77	3.8	78	3.7	74	3.7	73	3.7	-0.9
전북	66	3.2	62	3.0	55	2.8	50	2.5	-9.8
전남	61	3.0	60	2.9	56	2.8	48	2.4	-14.5
경북	116	5.7	109	5.2	108	5.4	105	5.3	-2.3
경남	118	5.8	114	5.4	107	5.3	114	5.7	6.4
제주	24	1.2	22	1.0	26	1.3	23	1.1	-12.1

주: 경남은 1998년 자료부터 울산광역시와 분리하여 별도로 작성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연보」

#### 4. 청소년의 실업 현황

2004년도 전체 실업자는 86만명, 실업률은 3.7%로 2003년에 비하여 실업자는 4만 2천명, 실업률은 0.1%p 증가하였고, 15~24세의 청소년 실업자는 23만 1천명, 실업률은 10.5%로 나타나 전년 비하여 실업자는 6만명, 실업률은 0.4%p 증가하였다. 이와 같이 청소년계층의 실업률은 다른 연령계층보다 매우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표 5-1-9〉 연령계층별 실업자수 및 실업률 추이 (단위: 천명, %)

구분	2001		2002		2003		2004		전년대비
	실업자	실업률	실업자	실업률	실업자	실업률	실업자	실업률	
전체실업자	899	4.0	752	3.3	818	3.6	860	3.7	0.1p
15~24세	233	10.2	196	8.5	225	10.1	231	10.5	0.4p
25~29세	179	6.1	165	5.8	176	6.3	181	6.5	0.2p
30~39세	205	3.2	186	2.9	190	3.0	196	3.1	0.1p
40~49세	171	3.0	119	2.0	135	2.2	147	2.3	0.1p
50~59세	86	2.8	61	1.9	70	2.2	78	2.3	0.1p
60세 이상	25	1.2	24	1.1	22	1.0	27	1.2	0.2p

산식: 실업률=실업자/경제활동인구×100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연보」

15~24세 청소년 실업률을 성별로 살펴보면, 남자가 12.2%, 여자가 9.4%로 남자 실업률이 여자보다 더 높았으며, 연령계층별로는 15~19세 실업률이 14.1%, 20~24세는 9.9%로 나타나 15~19세 연령계층의 실업률이 20~24세 실업률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04년도 연령계층별 실업자는 20~24세가 18만 9천명으로 15~19세 실업자 4만 2천명보다 4.5배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5-1-10〉 연령계층별 청소년 실업자수 및 실업률 추이

(단위: 천명, %)

구분	2001		2002		2003		2004	
	실업자	실업률	실업자	실업률	실업자	실업률	실업자	실업률
전체	233	10.2	196	8.5	225	10.1	231	10.5
남자	112	12.7	91	10.3	101	11.9	104	12.2
여자	121	8.6	105	7.5	124	9.0	127	9.4
15~19세	60	14.4	43	12.1	41	13.0	42	14.1
남자	30	15.3	22	13.5	20	14.4	20	14.9
여자	30	13.6	21	10.9	21	11.9	22	13.4
20~24세	174	9.3	153	7.9	184	9.6	189	9.9
남자	82	12.0	70	9.7	81	11.4	84	11.7
여자	92	7.8	83	6.8	103	8.6	105	8.8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연보」

15~24세 청소년 실업률을 교육 정도별로 살펴보면, 중졸 이하가 13.2%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고졸(11.0%), 대졸이상(8.9%)의 순으로 나타났다. 청소년 실업자수의 경우에는 고졸이 15만 3천명으로 가장 많고, 대졸 이상이 6만 2천명, 중졸 이하가 1만 7천명으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남자 청소년의 경우에 중졸 이하에서 13.8%, 여자도 중졸 이하가 12.1%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연령계층별로도 15~19세, 20~24세 연령계층 모두에서 중졸 이하 실업률이 각각 14.6%, 11.8%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표 5-1-11〉 교육정도별 청소년 실업자수 및 실업률(2004년)

구 분	계		중졸 이하		고 졸		대졸 이상	
	실업자	실업률	실업자	실업률	실업자	실업률	실업자	실업률
전 체	231	10.5	17	13.2	153	11.0	62	8.9
남 자	104	12.2	11	13.8	81	12.4	12	10.1
여 자	127	9.4	6	12.1	72	9.7	49	8.7
15~19세	42	14.1	9	14.6	33	13.9	0	-
남 자	20	14.9	6	15.7	15	14.6	0	-
여 자	22	13.4	4	13.4	18	13.4	0	-
20~24세	189	9.9	8	11.8	120	10.4	61	8.9
남 자	84	11.7	6	12.5	66	12.0	12	10.1
여 자	105	8.8	2	10.3	54	8.9	49	8.7

주 : 각 수치는 100단위에서 반올림하였으므로 전체합계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연보」

## 5. 청소년 취업정책

### 가. 노동시장 공급측면

학년단계별로 지속적인 진로·직업지도 및 직업세계 강연을 통해 올바른 직업관·직업의식의 확립을 도모하고 재학생의 취업증진을 위한 대학의 자발적인 노력 강화를 유도하며 수요자 중심의 직업교육·훈련시스템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초·중·고 재학생의 진로·직업지도를 위해 교과과정에 진로·직업교육 내용을 반영하고, 고용안정센터와 학교 간 연계를 강화하고 지역실정에 맞는 다양한 직업전학·체험프로그램을 마련하여 보급하며, 현직교사에 대한 연구, 학부모·기업인·분야별 전문가 등으로 인력 Pool을 구성하여 직업

교육강사로 활용하며, 각종 직업지도 행사에 교사, 학부모가 공동 참여하여 교사, 학부모에 대한 직업의식 확립도 병행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대학생의 직업세계 강연을 위해 연수체험을 확대하고, 기업 CEO 상의 및 진로·직업 과목 강의를 확대할 계획이다.

직업지도 프로그램의 제작과 생애단계별 체계적인 진로·직업지도의 기획·지원을 위해 중앙과 지방에 진로직업지도협의회를 구성·운영하며, 대학별·학과별 취업률을 공표하고 취업률 및 취업지원노력을 대학 평가에 반영하는 등 청소년층 취업 촉진을 위한 대학의 자구노력을 유도할 계획이다.

교육과정의 산업수요 적합성 평가를 통해 기업의 요구를 파악, 교육과정에 반영·유도하고 취업률이 높은 대학 모델과 산업수요에 맞는 대학 교육과정을 개발·보급하고, 산학협력의 강화를 위한 제도적 지원을 확대하고 대학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구조개혁도 추진할 계획이다.

직업훈련의 현장적응성 강화를 위해 지역산업수요에 적합한 지역단위 인적자원개발을 추진하고, 디지털 방송 등 성장동력산업육성에 필요한 중간기술인력을 양성 할 계획이다. 또한 정부부처·지자체·직능단체 등에 의한 특성화 실업계 고교 운영, 실업계 고교 졸업과 동시에 기업체 근무가 가능하도록 학교·기업간 취업협약의 체결을 추진할 계획이다.

### 나. 노동시장 인프라측면

청소년 개개인이 피부로 느낄 수 있고 접근하기 쉬운 노동시장 인프라 구축을 목표로 하고 공급자보다는 수요자 중심에서 청소년실업대책사업을 재구성하고 지속적인 성과평가를 통해 개선·보완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청소년층의 교육수준, 실업기간, 취업능력 등 능력과 특성에 따라 개인별로 특화된 종합취업지원서비스(YES: Youth Employment Service) 도입

을 추진하고, 청소년층이 쉽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는 대학 내의 취업지원 기능 강화 등 고용서비스 인프라 확충에 노력하고 있다.

노동시장 정보 생산과 보급강화로 청소년층의 올바른 직업·직업선택을 지원하고, 청소년층의 참여가 편리하도록 공급자가 아닌 수요자 입장에서 청소년실업대책을 시행하고 사업별 평가지표 개발을 통한 성과 제고를 도모하고 있다.

#### 다. 노동시장 수요측면

거시경제정책으로서의 접근과 시행중인 일자리 창출 종합대책에 따라 추진하되, 해외취업은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공공부문 일자리 제공은 사업별 평가결과에 따라 탄력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해외취업은 해외구인수요 등을 감안하여 단계적으로 확대하되, 이를 위해 우선적으로 해외 구입업체 정보를 통합 관리하는 등 종합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공공부문 일거리 지원사업은 사업별 평가결과에 따라 성과가 높은 사업은 지속 추진하되 비효율적인 사업은 과감하게 축소·폐지할 계획이다.

교대제 및 단시간 근로 활성화 등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와 고용창출의 주역으로서 기업가가 존경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기업가 정신 고양 캠페인을 실시하며, 청소년층 실업 해소를 위해 근로자·사용자 모두가 상호 양보를 통해 공동 노력하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할 계획이다.

## 제 2 장 신규졸업자 취업 상황

### 1. 중학교 졸업자 진로 상황

2004년도 우리나라의 중학교 졸업자는 600,378명으로 이들 중 99.7%인 598,705명이 고등학교 및 기타 학교로 진학했다. 최근 수년간 연령별 취업자 현황에서 15세에서 19세 사이의 인구가 감소하는 것(자료 : 노동부, 노동통계연감)에 비추어 볼 때 중학교 신규졸업자의 취업 인구수가 매우 적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고등학교 진학률의 지속적인 상승에 따른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중학교 졸업자들의 진로 현황은 다음과 같다.

〈표 5-2-1〉 중학교 졸업자의 진로 현황(2004년)

(단위 : 명)

구 분	졸업 자수	진 학 자						
		비율(%)	총 계		일 반 계		실 업 계	
			계	여	계	여	계	여
총 계	600,378	99.7	598,705	283,009	445,394	212,550	153,311	70,459
국 립	2,278	99.7	2,272	1,095	1,604	792	668	303
공 립	472,140	99.7	470,796	223,002	351,830	168,948	118,966	54,054
사 립	125,960	99.7	125,637	58,912	91,960	42,810	33,677	16,102

자료 : 교육인적자원부 「교육통계연보」 2004

## 2. 고등학교 졸업자의 취업 상황

### 가. 졸업자의 진로

2004년도 고등학교 졸업자는 일반계 고등학교 405,715명, 실업계 고등학교 182,835명이며, 이 가운데 취업자는 각각 5,748명과 60,062명이다. 이에 따라 일반계 고등학교 졸업자의 취업률은 14.0%인데 비해 실업계 고등학교의 취업률은 87.6%이다. 일반계 고등학교 졸업자 중 미취업자는 상당수가 재수생으로 추정된다.

〈표 5-2-2〉 고등학교 졸업자 취업률(2004년) (단위: 명)

구 분	졸업자수	진학자수	입대자수	취업자수	취업률
일반계	405,715	364,458	306	5,748	14.0%
실업계	182,835	113,944	354	60,062	87.6%
총 계	588,550	478,402	660	65,810	60.1%

산식: 취업률=취업자수/(졸업자수-(진학자수+입대자수))×100

자료: 교육인적자원부 「교육통계연보」 2004

〈표 5-2-3〉 고등학교 졸업자의 진로 현황(2004년) (단위: 명)

구 분	합 계		일반계		실업계	
	수	(여)	수	(여)	수	(여)
졸업자	588,550	(283,341)	405,715	(193,498)	182,835	(87,866)
진학자	478,402	(220,410)	364,458	(173,815)	113,944	(50,361)
취업자	65,810	(44,723)	5,748	(2,810)	60,062	(33,247)
무직자	17,910	(6,740)	12,870	(6,014)	5,040	(2,534)
입대자	660	(-)	306	(-)	354	(-)
미상	25,768	(11,468)	22,333	(10,859)	3,435	(1,724)

주: (-) 안은 여자

자료: 교육인적자원부 「교육통계연보」 2004

직업별 취업자수는 일반계 고등학교 취업자의 경우에는 서비스근로자, 판매근로자가 2,994명으로 가장 많은 반면, 실업계 고등학교 취업자의 경우에는 기능원 및 관련기능종사자(15,348명)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5-2-4〉 고등학교 졸업자의 직업별 취업자수(2004년)

(단위: 명)

업종	일반계		실업계	
	계	여자	계	여자
입법공무원·고위임직원관리자	-	-	-	-
전문가	3	2	-	-
기술자, 준전문가	304	93	3,241	836
사무직원	955	588	14,809	12,604
서비스근로자, 판매근로자	2,994	1,588	12,836	8,386
농업및어업숙련근로자	13	2	510	76
기능원 및 관련기능근로자	607	195	15,348	5,317
장치·기계조작원, 조립원	476	165	10,382	4,286
단순노무직근로자	369	177	3,587	1,741
군인	27	-	69	1
계	5,748	2,810	60,062	33,247

자료: 교육인적자원부 「교육통계연보」 2004

### 나. 취업경로

우리나라 고등학교 졸업자들의 주된 취업경로는 학교 추천, 친구 및 친지 소개, 실습 등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4년도에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취업한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들의 경우에 33.6%(1,933명)가 친구 및 친지 소개를 통해 취업을 하였으며, 실업계 고등학교 취업자의 경우에는 46.2%(27,747명)가 학교의 추천을 통해 취업하고 있다. 이밖에 실습, 채용시험, 기타의 경로를 통해 취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2-5〉 고등학교 졸업자의 취업경로별 취업 상황(2004년) (단위: 명)

취업경로	구분	일반계		실업계	
		계	여자	계	여자
학교 추천		729	423	27,747	19,335
채용시험		685	316	3,048	2,109
친구 및 친지 소개		1,933	1,108	8,350	4,569
실습		978	341	16,357	5,018
부모 경영 사업		176	73	1,184	491
자영		83	28	531	248
기타		1,164	521	2,845	1,477
합계		5,748	2,810	60,062	33,247

자료: 교육인적자원부 「교육통계연보」 2004

### 3. 특수학교 졸업자 진로 현황

특수학교에서는 중학교, 고등학교 과정으로 직업교육을 하고 있으며, 직업교육 직종은 29개 종목이며, 학교별로 지역사회 여건 등을 감안하여 추가할 수 있다. 1999년도에는 이례적으로 취업률이 높았으나, 2004년도에는 44.7%로 저조한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표 5-2-6〉 연도별 특수학교 졸업생의 취업 및 진학생수(2004년) (단위: 명)

구분	연도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졸업생수		1,627	1,501	1,894	2,106	2,057	1,925	1,986
취업생수		533	509	578	645	580	632	559
진학생수		375	997	578	723	723	586	736
취업률(%)		42.6	99.0	43.9	46.6	43.5	47.2	44.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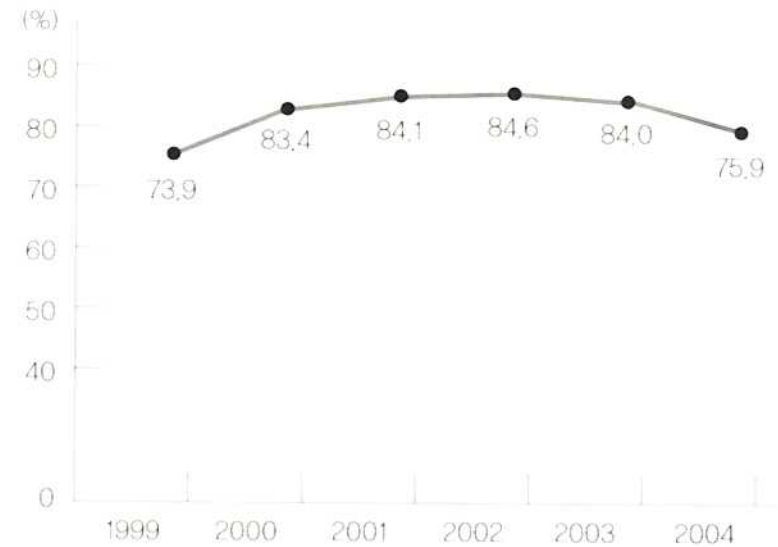
산식: 취업률 = (취업생수 / 졸업생수 - 진학생수) × 100

자료: 교육인적자원부 「교육통계연보」 2003, 「특수교육실태조사서」 2005

## 4. 전문대학·대학졸업자 취업 상황

### 가. 전문대학 졸업자 취업 상황

산업계의 고용구조가 개선되고, 전문대학에 대한 정책지원 및 사회적 인식의 제고, 산학협동의 강화, 전문대학 학교당국의 교육 내실화 등에 힘입어 1997년부터 금융 위기 이후 급감했던 취업률은 1998년 이후 경기회복과 더불어 증가 추세를 보여 2002년에는 84.6%로 높아지다가 그 이후 점차적인 감소 추세를 보여 2004년도에는 75.9%로 나타나고 있다.



자료: 교육인적자원부 「교육통계연보」 2004

〈그림 5-2-1〉 연도별 전문대학 졸업자의 취업률



<표 5-2-7> 연도별 전문대학 졸업자의 취업률

(단위 : 명)

구분	연도		2000		2001		2002		2003		2004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졸업자	223,489		232,972		239,114		246,789		226,886			
진학자	14,817		16,430		18,729		20,328		15,037			
군입대자	7,149		5,423		5,539		5,442		3,338			
미상	9,834		7,887		9,912		11,536		8,862			
취업대상자	191,689	100	203,232	100	204,934	100	209,483	100	199,649	100		
-취업자	159,960	83.4	170,986	84.1	173,356	84.6	176,044	84.0	160,906	80.6		
-가사 및 기타	31,729	16.6	32,246	15.9	31,578	15.4	33,439	16.0	38,743	19.4		

자료 : 교육인적자원부 「교육통계연보」 2004

전문대학 졸업자의 계열별 취업 상황을 살펴보면, 사범계열이 87.0%로 가장 높고, 사회계열(78.3%), 공학계열(77.0%), 예체능계열(74.0%), 자연계열(73.6%), 의약계열(72.5%) 등은 70%대의 취업률을 보인 반면, 인문계열은 16.2%로 취업률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5-2-8> 전문대학 졸업자 계열별 취업 상황

(단위 : 명)

구분	계열	인문	사회	공학	자연	의약	예체능	사범	합계
졸업자		13,267	56,261	76,563	18,866	19,657	38,840	3,432	226,886
취업대상자		10,834	49,991	67,026	16,684	18,431	33,456	3,227	199,649
취업자		1,851	41,243	54,929	13,070	13,965	26,705	2,859	160,906
취업률 (%)		16.2	78.3	77.0	73.6	72.5	74.0	87.0	75.9

자료 : 교육인적자원부 「교육통계연보」 2004

### 나. 대학졸업자 취업 상황

대학졸업자의 취업률도 전문대학 졸업자의 취업률과 비슷한 경향을 보이고 있다. 1990년대에 들어 꾸준히 증가하여 왔으나 1997년 IMF사태를 맞으면서 감소추세로 돌아서 1998년에는 최악의 상황을 맞았다. 1999년부터 서서히 회복되기 시작하여 2002년에 60.7%의 취업률을 보이다가 그 이후 점차적으로 감소추세를 보여 2004년도에는 56.4%로 나타나고 있다.

<표 5-2-9> 연도별 대학졸업자 취업률 현황

(단위 : 명)

구분	졸업자	진학자	입대자	취업대상자	취업자	취업률(%)
1995	180,664	16,500	4,326	159,838	97,290	60.9
1996	184,212	19,329	3,831	161,052	101,911	63.3
1997	192,465	23,078	3,860	165,527	102,245	61.8
1998	196,566	24,141	2,565	169,860	85,805	50.5
1999	204,390	26,141	2,643	175,606	90,147	51.3
2000	214,498	26,000	2,225	186,273	104,371	56.0
2001	239,702	27,193	2,102	210,407	119,239	56.7
2002	244,852	29,526	2,137	213,189	129,414	60.7
2003	258,126	31,186	2,251	224,689	133,122	59.2
2004	267,058	29,661	2,842	224,554	132,199	56.4

산식 : 취업률 = (취업자수 / 졸업자수 - (진학자수 + 입대자수)) × 100

자료 : 교육인적자원부 「교육통계연보」 2004

대학졸업자의 계열별 취업률을 살펴보면, 의약계열의 경우만 85.9%로 높은 취업률을 보이고 있는 반면, 예체능계열이 60.2%로 평균을 웃돌고 있을 뿐, 나머지 계열은 50% 내외의 취업률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5-2-10〉 대학졸업자 계열별 취업률 (단위 : %)

구분 연도	취업률						
	전체	인문계	사회계	자연계	의약계	예체계	사범계
1995	60.9	52.8	61.3	64.6	79.9	55.6	52.0
1996	63.3	54.0	63.1	66.9	81.9	59.6	56.9
1997	61.8	53.2	59.2	64.9	81.8	61.4	58.9
1998	50.5	45.4	46.9	50.3	84.8	52.4	53.2
1999	51.3	47.2	49.6	50.8	80.5	54.1	48.0
2000	56.0	51.1	54.1	55.6	86.2	58.6	54.4
2001	56.7	52.0	54.1	57.0	83.1	59.2	56.7
2002	60.7	57.6	57.9	59.4	90.1	64.5	61.0
2003	59.2	56.4	55.4	58.5	87.9	64.2	59.1
2004	56.4	52.6	51.2	49.9	85.9	60.2	52.9

자료 : 교육인적자원부 「교육통계연보」 2004

### 제 3 장 근로조건

#### 1. 임금 및 근로시간

2004년 청소년근로자의 월 평균 임금은 정액 및 초과급여 기준으로 19세 이하가 995천원으로 전년대비 10.2% 상승하였고, 20~24세는 1,150천원으로 전년대비 9.8% 상승하였다.

청소년근로자의 월 평균 근로시간은 19세 이하 청소년근로자의 경우에는 2003년까지 전체 근로자에 비해 근로시간이 높았으나, 2004년에는 전체 근로자의 근로시간(209.5시간)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청소년

〈표 5-3-1〉 청소년 근로자의 임금수준 : 정액 및 초과급여 (단위 : 천원, %)

구분	임금수준		증가율	
	~19세	20~24세	~19세	20~24세
2000	715	833	10.7	7.8
2001	792	877	10.8	5.3
2002	874	978	10.4	11.5
2003	903	1,047	3.3	7.1
2004	995	1,150	10.2	9.8

자료 : 노동부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보고서」 각년도

근로자 중에서는 20~24세 청소년근로자(207.5시간)가 19세 이하 청소년근로자(208.4시간)보다 낮다.

〈표 5-3-2〉 연령별 월평균 근로일수 및 근로시간 (단위 : 일, 시간)

연도	연령별	전체		남자		여자	
		근로일수	근로시간수	근로일수	근로시간수	근로일수	근로시간수
2001	전체	24.5	204.9	24.5	207.9	24.7	198.3
	~19세	24.8	206.4	24.7	217.3	24.8	202.7
	20~24세	24.7	201.7	24.8	215.7	24.6	196.6
2002	전체	23.5	201.8	23.5	204.3	23.7	195.9
	~19세	24.0	208.0	24.2	216.4	23.9	203.9
	20~24세	23.7	199.5	24.0	212.3	23.6	193.4
2003	전체	23.5	201.8	23.4	204.7	23.6	195.2
	~19세	23.5	202.3	23.8	211.7	23.4	197.8
	20~24세	23.6	198.9	23.7	212.0	23.5	192.8
2004	전체	24.4	209.5	24.3	212.1	24.7	203.5
	~19세	24.5	208.4	24.6	215.1	24.5	204.5
	20~24세	24.6	207.5	24.7	220.3	24.6	200.8

자료 : 노동부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보고서」 각년도

## 2. 근로청소년 특별보호

근로청소년 중 18세 미만의 연소근로자는 아직 성장과정에 있기 때문에 일반 성인근로자와 동일하게 취급할 수 없는 신체적·정신적 특성을 지니고 있다.

정부에서는 이와 같은 연소자의 보호를 위하여 근로기준법에 별도의 장을 마련하여 특별히 보호하고 있으며, 모든 근로청소년들이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기회 부여와 정서함양 사업 등 근로조건 개선 및 복지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 가. 근로 청소년에 대한 법적 보호

연소근로자를 위한 최초의 법규는 1946년 미군정시의 아동근로법규였으며, 이 법규는 이듬해인 1947년에 미성년자근로보호법으로 개정되었다. 1948년에는 대한민국 헌법이 제정되어 근로조건의 기준을 법률로 정하도록 하고 여성과 소년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도록 규정하였다.

1953년에는 근로기준법을 제정, 제5장에 여성과 소년의 보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1) 최저연령과 취직인허증(제62조)

근로기준법은 아동이 의무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15세 미만인 자는 근로자로 고용하지 못하게 하고 있으며 다만, 노동부장관의 취직인허증을 소지한 13세 이상 15세 미만인 자는 예외로 하고 있다. 단,

예술공연참가를 위한 경우에는 13세 미만인 자도 취직인허증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취직인허증은 본인의 신청이 있으면 유해, 위험하지 않고 의무교육에 지장이 없는 직종에 한하여 발급해 주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는 1999년 1월 ILO협약 제138호(취업의 최저연령에 관한 협약)에 가입하여, 동 협약의 효력이 발생한 2000. 1. 28일부터는 취업최저연령이 13세로 제한되었다.

#### (2) 사용금지(제63조)

18세 미만 연소근로자의 안전과 위생을 보장하기 위하여 도덕상 또는 보건상 유해하거나 위험한 업무에 고용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

#### (3) 연소자 증명서 비치(제64조)

취업이 허용되는 15세 이상의 연소근로자라 할지라도 18세 미만자에 대하여는 이를 고용하는 사업주가 그 연령을 증명하는 호적증명서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의무적으로 비치토록 하고 있다.

#### (4) 근로계약(제65조)

친권자 또는 후견인은 미성년자의 근로계약을 대리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이것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이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미성년자를 불리한 업무에 취업시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또한 친권자 및 후견인 그리고 노동부장관은 근로계약이 미성년자에게 불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를 해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5) 임금청구(제66조)

미성년자의 임금은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하되 본인에게 직접 지불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미성년자에게 임금의 독자적 청구권을 인정하고 있다. 이는 친권자 또는 후견인이 미성년자를 취업시켜 미성년자의 임금을 착취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함이다.

(6) 근로시간(제67조)

15세 이상 18세 미만 근로자의 근로시간은 1일 7시간, 1주일에 42시간을 초과하지 못하게 하고 있으며,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1일 1시간, 1주일에 6시간 한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다만, 1주당 근로시간은 2004. 7. 1일부터 2011년까지 기업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40시간으로 단축된다.

(7) 야업 및 휴일근로 금지(제68조)

18세 미만 근로자는 하오 10시부터 상오 6시까지를 근로시키지 못하며 휴일근로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본인의 동의와 근로자의 건강을 위하여 그 시행여부와 방법 등에 관하여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대표와 성실하게 협의한 후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얻은 경우에는 예외로 이를 허용하고 있다.

(8) 갭내 근로금지(제70조)

18세 미만 근로자는 갭내에서의 근로를 금지하고 있는데, 이것은 갭내의 근로환경이 위험할 뿐만 아니라 진폐의 우려 등 보건상 유해하기 때문이다. 다만 보건·의료, 신문·출판·방송프로그램 제작을 위한 보도·취재 등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이를 허용하고 있다.

나. 연소근로자 근로조건 보호 지도점검

아르바이트를 많이 하는 방학기간을 맞이하여 매년 연소근로자 고용사업장에 대한 근로조건 보호를 위한 지도점검을 실시해 오고 있으며 2004년의

〈표 5-3-3〉 연소근로자 근로조건 보호 지도점검 현황 (단위: 개소, 건)

연도	대 상	법위반 업체수	법위반유형별 건수							
			최저연령과 취직 인허증 (제62조)	사용금지 (제63조)	연소자 증명서 (제64조)	근로계약 (제65조)	근로시간 (제67조)	야업금지 (제68조)	최저 임금	기타
2000	제조업,도소매업, 음식숙박업 420개소	110개소	2	-	75	-	39	43	2	11
2001	연소자고용사업장 331개소	110개소	-	-	78	-	34	22	4	38
2002	연소자고용사업장 524개소	206개소	9	-	119	-	55	63	5	118
2003	주요취업업종 907개소	431개소	10	-	262	-	64	79	33	391
2004	1,241개소	727개소	8	-	354	-	73	136	60	854

자료: 노동부

경우 1,241개소를 점검하여 727개소의 범위만 사항을 적발하여 시정 등 조치를 취한 바 있다.

### 3. 청소년 시간 근로(아르바이트)

#### 가. 청소년의 아르바이트 경험

청소년들 중에서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는 청소년은 38.1%이며, 이 중에서 3.9%가 현재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으며, 34.2%는 과거에 아르바이트

〈표 5-3-4〉 아르바이트 경험률

(단위: %)

구 분	계	경험률	경험률		비경험률
			현재 하고 있다	과거에 한적 있다	
전 체	100.0	38.1	3.9	34.2	61.9
남 자	100.0	35.1	3.5	31.6	64.9
여 자	100.0	42.3	4.3	38.0	57.7
연 령					
13세	100.0	26.6	1.5	25.1	73.4
14세	100.0	20.9	0.5	20.4	79.1
15세	100.0	29.2	2.3	26.9	70.8
16세	100.0	37.0	3.6	33.4	63.0
17세	100.0	44.9	5.9	39.0	55.1
18세	100.0	59.1	6.0	53.2	40.9
19세	100.0	75.3	16.9	58.4	24.7
신 분 별					
중 학 교	100.0	22.9	1.2	21.7	77.1
인문계고교	100.0	22.7	1.3	21.3	77.3
실업계고교	100.0	51.3	7.9	43.4	48.7
시설청소년	100.0	54.9	5.0	49.9	45.1

자료: 청소년보호위원회 「청소년 아르바이트 실태조사」 2004

경험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여자 청소년(42.3%)이 남자 청소년(35.1%)에 비해 아르바이트 경험이 많았고, 연령대로는 19세가 75.3%로 가장 많았으며, 신분별로는 시설청소년(54.9%), 실업계 고등학생(51.3%), 중학생(22.9%), 인문계 고등학생(22.7%) 등의 순으로 경험을 많이 한 것으로 나타났다.

#### 나. 청소년 시간근로 구직 경로 및 동기

청소년들의 아르바이트 구직 경로는 친구나 선생님 등의 아는 사람의 소개로 일하는 경우가 40.4%로 가장 많았으며, 길거리나 상점 등의 광고(19.7%), 생활정보지(12.2%), 가족·친척의 소개(11.8%)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청소년들이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는 동기는 용돈을 벌려고 하는 경우가 74.6%로 가장 많으며, 사회 경험을 쌓기 위해서(10.6%), 다른 친구들을 쫓아서(6.1%), 가정 형편이 어려워(5.5%) 등으로 나타났다.

〈표 5-3-5〉 아르바이트 구직경로

(단위: %)

구 분	계	친구 교사 등의 소개	길거리 상점 등의 광고	생활 정보지	가족 친척 소개	취업 정보 사이트 이용	부탁 으로	취업 알선 업체 이용	호 기 심	기타	무응답
전 체	100.0	40.4	19.7	12.2	11.8	4.9	4.8	2.0	1.7	2.5	1.7
남 자	100.0	43.2	16.1	10.0	13.9	3.3	5.3	3.2	2.0	2.5	1.4
여 자	100.0	37.1	23.8	14.7	9.4	6.6	4.2	0.6	1.3	2.5	2.2

자료: 청소년보호위원회 「청소년 아르바이트 실태조사」 2004

〈표 5-3-6〉 처음 아르바이트를 하게 된 동기 (단위: %)

구분	계	용돈을 벌려고	사회 경험을 위해서	친구들을 따라서	가정 형편이 어려워	공부에 도움이 되어서	기타	무응답
전체	100.0	74.6	10.6	6.1	5.9	0.7	3.8	0.6
남자	100.0	76.2	11.2	4.1	4.3	0.5	4.1	0.6
여자	100.0	72.7	10.0	8.4	6.9	0.9	3.5	0.6

자료: 청소년보호위원회 「청소년 아르바이트 실태조사, 2004」

#### 다. 청소년 시간근로 업종

청소년들의 아르바이트 업종은 전단지배포·스티커 부착이 29.1%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일반음식점(21.7%), 패스트푸드점(10.7%), 주유소(4.8%), PC방·만화방(4.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신분별로 살펴보면, 실업계 고등학생이나 시설청소년은 일반음식점에 종사하는 경우가 가장 많은 반면, 인문계 고등학생이나 중학생의 경우에는 전단지배포·스티커 부착

〈표 5-3-7〉 아르바이트 업종 (단위: %)

구분	경험률	전단지 스티커	일반 음식점	패스트 푸드점	주유소	PC방 만화방	건설 현장	공장	신문 우유 배달	유흥 업소
전체	38.1	29.4	21.7	10.7	4.8	4.3	4.2	3.8	3.2	2.9
남자	35.1	30.6	19.5	9.9	5.9	4.9	7.7	4.6	4.5	2.0
여자	42.3	28.1	24.1	11.7	3.6	3.6	0.1	2.9	1.8	3.9
신분별										
중학교	22.9	70.3	7.6	4.5	1.0	3.4	0.3	1.0	3.8	0.3
인문계고교	22.7	41.2	17.0	9.3	1.5	4.6	6.2	3.6	2.6	0.0
실업계고교	51.3	17.4	32.1	13.6	5.1	3.1	7.7	6.1	3.3	1.2
청소년시설	54.9	19.3	20.4	11.4	7.1	5.4	2.4	3.1	3.1	6.1

자료: 청소년보호위원회 「청소년 아르바이트 실태조사, 2004」

이 가장 많은 것으로 차이를 보였다.

#### 라. 청소년 시간근로 임금

아르바이트 시 받게 되는 임금은 2,000원~3,000원이 31.6%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3,000원~5,000원(19.7%), 1,000원~2,000원(7.7%) 등이었으며, 평균 2,995원이었다. 성별로는 남자 청소년의 평균 임금이 3,127원으로 여자 청소년의 2,857원보다 많았다.

〈표 5-3-8〉 아르바이트 임금(시간당 보수) (단위: %)

구분	계	1000원미만	1000원~2000원	2000원~3000원	3000원~5000원	5000원 이상	무응답	평균(원)
전체	100.0	2.0	7.7	31.6	19.7	7.3	31.6	2995.8
남자	100.0	1.7	5.8	27.3	20.5	9.8	34.9	3127.9
여자	100.0	2.3	10.0	36.7	18.9	4.3	27.8	2857.0

자료: 청소년보호위원회 「청소년 아르바이트 실태조사, 2004」

청소년이 아르바이트 시 받게 되는 임금 형태는 시간급이 45.0%로 가장 많았으며, 부수당(17.5%), 일당(13.2%), 월급(10.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남자 청소년의 경우에는 부수당(10.5%)이나 일당(16.1%)이 이

〈표 5-3-9〉 아르바이트 임금(형태) (단위: %)

구분	계	시간급	일당	주급	월급	부수당 (전단지 등)	무응답
전체	100.0	45.0	13.2	1.5	10.5	17.5	12.3
남자	100.0	41.7	16.1	1.4	8.9	20.5	11.4
여자	100.0	48.9	9.8	1.6	12.3	14.0	13.4

자료: 청소년보호위원회 「청소년 아르바이트 실태조사, 2004」

자 청소년보다 많았으며, 여자 청소년의 경우에는 시간급(48.9%)이나 임금(12.3%) 등이 남자 청소년보다 많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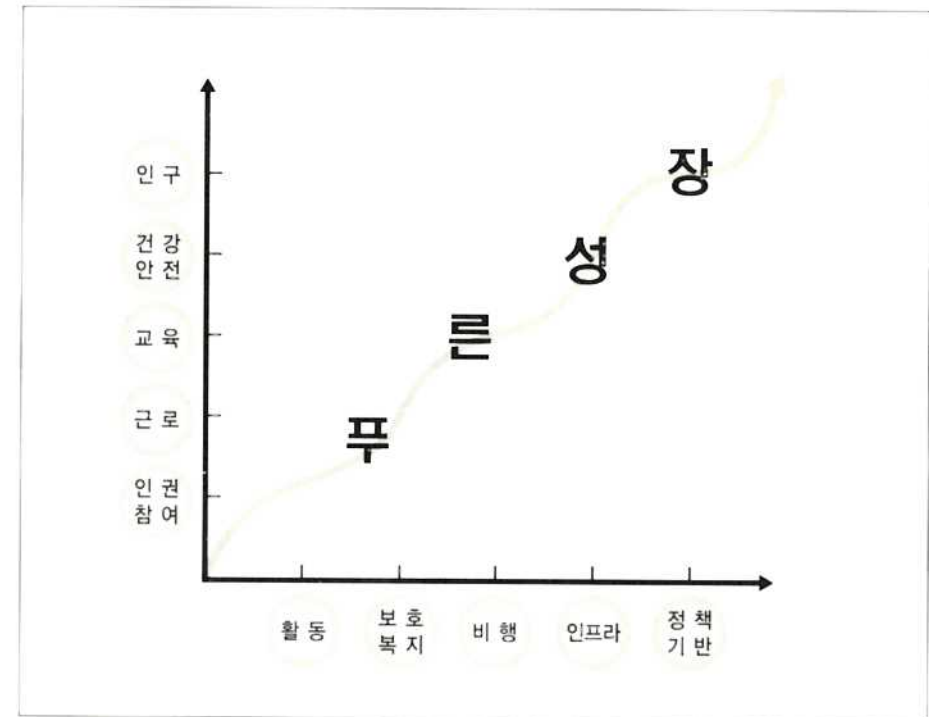
#### 마. 청소년 아르바이트 시 인권침해 상황

청소년이 아르바이트 시 받게 되는 인권침해는 임금체불(11.9%)과 임금삭감(11.8%)가 가장 많으며, 그 다음으로 폭행피해(4.3%), 성적피해(1.7%) 등으로 나타났다. 특히, 성별로 볼 때 여자청소년의 침해 상황이 보다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여자 청소년은 임금체불이 13.4%, 임금삭감이 12.7%, 그리고 성적 피해가 2.9%로 남자 청소년보다 침해 경험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5-3-10〉 아르바이트 관련 인권침해 현황 (단위 : %)

구분	임금체불		임금삭감		폭행피해		성적피해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전체	11.9	88.1	11.8	88.2	4.3	95.7	1.7	98.3
남자	10.5	89.5	11.0	89.0	4.6	95.4	0.7	99.3
여자	13.4	86.6	12.7	87.3	4.0	96.0	2.9	97.1

자료 : 청소년보호위원회 「청소년 아르바이트 실태조사」, 2004



인권  
참여

**청**소년 인권 · 참여정책이 전담부서를 갖춘 독자적인 정책영역으로 자리잡게 된 것은 최근의 일이다. 그동안 청소년 인권 · 참여에 대한 관심과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확대되고 정책방향과 이념으로서 그 중요성이 강조되어 왔으나 실질적인 정책과제와 사업으로 생활화 현장에 뿌리 내리지 못했으나 이제 구체적인 실천전략을 적극적으로 개발 · 시행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게 되었다.

**청**소년 인권 및 참여 정책 담당부서로는 청소년 위원회에 참여개발팀, 인권폭력대책팀 국가인권위원회에 인권정책국, 인권상담센터, 인권침해조사국(차별조사국), 교육협력국과, 교육인적자원부에 초중등교육정책과, 보건복지부에 아동안전관리팀, 아동복지팀, 노동부에 평등정책기획팀, 법무부에 인권과, 소년제1과, 소년제2과가 있다.



**청**소년 인권 및 참여를 위한 가구 및 조직에는 청소년인권센터, 청소년참여위원회, 청소년운영위원회, 청소년소리기자단, 청소년의회 등이 있다.





## 제 1 장 청소년 인권 · 참여 정책기반

### 1. 청소년 인권 · 참여 정책의 형성과정

청소년분야에서 청소년 인권정책 · 사업이 독자적인 영역으로서 관심을 갖게된 것은 90년대 후반부터이다. 청소년분야에서는 제2차 청소년육성5개년계획(1998-2002)을 계기로 '청소년 인권신장과 자율 · 참여'를 주요 정책이념으로 하는 획기적 정책패러다임의 전환을 이끌어 내면서, 청소년 인권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사회구성원으로서 청소년의 시민권 보장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노력은 2003년도의 제3차 청소년육성기본계획(2003-2007) 수립으로 이어져 왔다.

제3차 청소년육성기본계획은 5가지 세부추진과제 중 하나로 '청소년 권리신장 및 자발적 참여 기반 구축' 과제를 설정하고, '청소년 정책참여 기회 확대', '청소년의 시민 · 자치권 향상', '청소년 자율 · 봉사활동 강화' 분야의 사업을 펼쳐왔다.

2005년 청소년위원회 발족과 함께 5월에 발표된 '통합적 청소년정책 과제'는 '청소년 참여 · 인권증진사업'을 4대 핵심추진과제로 설정함으로써 참여 · 인권정책이 핵심적인 정책분야로 자리 잡기에 이르렀다.

이를 계기로 청소년 참여의 생활화와 사회적 공감대 확



산, 청소년 참여를 위한 제도적 기반 정착, 청소년과의 실질적인 파트너십 유지와 권한의 이양을 주요 추진방향으로 하는 청소년 참여 · 인권정책과 사업이 적극적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청소년 참여 · 인권증진을 위한 세부 추진과제는 '청소년 참여를 통한 사회문제 해결', '청소년 참여 내실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구축', '청소년특별회의 운영 강화', '지방의회 직속의 참여위원회 설치', '청소년 정책청문의 확대', '청소년 인권향상을 위한 협력 강화 및 의식 확산' 등의 분야로 구성되어 있다.

### 2. 청소년 인권 · 참여 정책의 기반조성

#### 가. 청소년 인권 · 참여정책 담당조직

##### (1) 청소년위원회의 청소년 인권 · 참여정책 담당부서

2005년 청소년위원회 출범으로 청소년 인권 · 참여 정책 담당 부서가 마련됨으로써 인권 · 참여정책을 적극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되었다.

청소년위원회에서 청소년 인권 · 참여정책을 담당하는 주요 부서는 청소년정책단의 '참여개발팀'과 활동복지단의 '인권폭력대책팀'이다. 인권폭력대책팀에서는 청소년 인권 등 청소년의 권리증진에 관한 기본 계획의 수립 · 시행, 근로 · 장애 · 탈북청소년 권리보호 및 구제, 청소년 인권관련 국제협약에 관한 사항 및 청소년인권백서의 발간 등을 주요 사업으로 수행하고 있다. 참여개발팀에서는 청소년 참여 · 능력개발, 진로 및 취업 지원 등 청소년참여와 관련한 업무를 주로 수행하고 있는데, 인권을 연계하여 청소년특별회의, 참여위원회, 읍부즈만 구성 · 운영 등의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2005년 10월 현재, 참여개발팀 8명과 인권폭력대책팀 6명의 인력이 청소년 인권·참여 정책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청소년위원회 정책자문위원회 '인권·폭력 분과위원회'의 9명의 전문가가 정책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표 6-1-1〉 청소년위원회 인권·참여정책 담당부서의 주요업무

참여개발팀 담당업무	인권폭력대책팀 담당업무
1. 청소년 참여·능력개발 등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1. 청소년 인권 등 청소년의 권익증진 등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2. 청소년특별회의의 구성·운영	2. 청소년 권익침해와 관련한 조사 및 구제·지원
3. 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운영	3. 근로·장애·탈북청소년 권익보호 및 구제에 관한 사항
4. 청소년참여 창작 미디어 지원	4. 청소년 인권관련 국제협약에 관한 사항 및 청소년인권백서 발간
5. 청소년 옴부즈만 운영 등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5. 청소년인권관련 시민사회운동 지원
6. 청소년 참여 활성화프로그램 개발·보급	6. 청소년 비행·폭력예방 및 선도에 관한 계획 수립·시행
7. 학교교육·평생교육과 연계한 청소년능력개발 프로그램 개발·시행	7. 비행·폭력 등 일탈청소년 선도·보호를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8. 청소년의 사회진출을 위한 연결서비스 프로그램의 개발·운영	8. 비행·폭력 등 일탈청소년의 교육적 선도에 관한 사항
9. 청소년 취업·창업 지원 및 진로 지도와 실업해소에 관한 사항	9. 청소년선도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10. 청소년 인턴취업 및 직업체험 프로그램 운영	10. 청소년 후견인제도의 운영
11. 청소년관련 기관·단체 종사자 교육·훈련	11. 비행·폭력 등의 일탈행위를 한 청소년을 위한 선도시설의 운영 및 지원
12. 청소년 체력인증제 등 체력 향상에 관한 사항	
13. 청소년 건강 증진 및 체력기준 설정·보급에 관한 사항	

자료 : 청소년위원회조직 시행규칙 제4조 및 제5조

청소년위원회는 청소년기본법 제10조에 의거 청소년정책에 관한 관계기관간의 연계·조정과 상호 협력을 위해 관계기관 공무원으로 구성된 '청소년정책 관계기관 협의회'를 운영하고 있는데, 청소년 인권관련 정부정책 추진과정에서 협의·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청소년정책 관계기관 협의회'에서 인권관련 사항을 필수적인 협의사항으로 선정·운영하고자 한다.

## (2) 관련 부처의 청소년 인권·참여정책 담당부서

현재 우리나라 청소년 인권정책은 청소년위원회를 비롯하여 국가인권위원회, 교육인적자원부, 노동부, 보건복지부, 법무부 등 여러 정부부처에서 수행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 관련 모니터링 기구로서 인권관련 정책·법령·관행·제도 등을 모니터링하고, 인권침해 및 차별에 대해서 개선 권고 및 의견표명을 하고 있다. 청소년 영역만을 별개로 담당하는 독립부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인권업무 중 한 영역으로 다루어지고 있다. 즉, 인권정책국에서는 청소년 관련 국가기구의 정책이나 법령 등을 모니터링하여 그 개선에 대해 권고하거나 의견을 표명하고, 인권상담센터에서는 인권침해나 차별사건을 신고하는 개별 진정인의 진정을 상담·접수한다. 또한 인권침해조사국과 차별조사국에서는 진정에 대한 조사나 직권조사를 통해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관련기관에 권고를 하며, 교육협력국에서는 인권교육·홍보 관련 국내·외 기관과의 협조 등을 수행하고 있다.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초·중·등교육정책과에서 학생들의 인권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학교생활규정의 제정과 학생인권 관련 정책의 수립, 학생권익보호, 학생 인권의 사회 기여, 그리고 학생인권침해(복상, 두발, 사치회 활동 등)와 관련한 사안을 처리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최근 아동정책을 아동안전·권리와 아동복지로 구분하

이 수행하고 있다. 아동안전·권리팀이라는 새로운 부서의 신설을 통해서 아동인권 정책을 수행하고 있는데, 아동안전·권리정책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조정, 아동관련 법령, 아동정책조정위원회의 운영, 아동학대 예방 및 학대 아동의 보호, 아동 관련 국제협력, 아동의 권익증진 등에 관한 사항을 다루고 있다. 그리고 아동복지팀에서는 아동의 가정위탁 등 가정보호아동의 지원 및 관리, 아동입양에 관한 사항 등을 수행하고 있다.

노동부에서는 청소년인권과 관련하여 별도의 독립된 부서를 설치하고 있지 않는데, 평등정책기획팀과 근로기준팀에서 연소근로자 근로조건의 보호 및 개선, 근로청소년 복지·지원시설의 운영지도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법무부의 경우에는 종합적인 인권계획의 수립, 인권 관련 법제도, 국내외 인권 관련 업무 등을 수행하는 인권과와 소년 보호 및 보호소년과 관련한 인권 업무를 수행하는 소년 제1과, 소년 제2과가 있다.

〈표 6-1-2〉 관련 부처 청소년 인권·참여정책 담당부서와 주요업무

부처명	관련부서	주요 업무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정책국	· 청소년관련 국가기구의 정책이나 법령 등의 모니터링 및 개선 권고 또는 의견 표명
	인권상담센터	· 인권침해, 차별에 대한 개별 진정 상담·접수
	인권침해조사국 차별조사국	· 인권침해나 차별에 대한 개별 진정 조사 또는 관련 기관 권고
	교육협력국	· 인권교육·홍보 관련 국내외 기관과 협조
교육인적자원부	초중등 교육정책과	· 학교생활규정 제정, 학생인권 관련 정책 수립 · 학생권익 보호, 학생인권의 사회기여 등 · 학생인권침해(복장, 두발, 자치회활동 등) 사안 처리

(표 계속)

보건복지부	아동안전· 권리팀	· 아동안전·권리정책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조정 · 아동관련 법령에 관한 사항 · 아동정책조정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 아동학대 예방 및 학대 아동의 보호에 관한 사항 · 아동 관련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 아동의 권익증진에 관한 사항
보건복지부	아동복지팀	· 아동의 가정위탁 등 가정보호아동의 지원 및 관리 · 아동의 입양지원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 아동입양에 관련된 국제협약에 관한 사항 · 입양주간 및 입양의 날에 관한 사항
노동부	평등정책기획팀 근로기준팀	· 연소근로자 근로조건의 보호 및 개선 · 근로청소년 복지·지원시설의 운영지도
법무부	인권과	· 인권옹호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 · 인권관련 법령 및 제도에 관한 조사·연구 · 인권옹호에 관한 각 부처 간의 협력 · 인권관련 국제협약에의 가입 및 국내 시행
	소년제1과	· 소년보호행정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 · 소년보호행정 관련 법령입안 및 제도에 관한 조사·연구 · 소년보호행정공무원의 배치·교육훈련 및 복무 감독 · 소년원·소년분류심사원에 대한 지도 감독
	소년제2과	· 보호소년등의 수용·감호·이송·퇴원 기타 처우 · 교과교육소년의 초·중·고등학교 교육과정 운영 및 학사관리 · 직업훈련소년원의 직업전문학교과정 운영 · 보호소년등의 생활지도·특별활동 및 교육행사

## 나. 청소년 인권·참여정책의 법적 근거

청소년 관련법은 청소년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할 것과 의견표명권, 자치권, 참여권 등 청소년의 시민적 권리를 천명하고 있다.

청소년기본법 제2조는 청소년 정책이념 구현을 위한 주요 추진방향으로 '청소년 참여보장'을 설정하고 있으며, 청소년기본법 제5조는 '청소년의 기본적 인권은 청소년활동, 청소년복지, 청소년보호 등 청소년육성의 모든 영역에서 존중되어야 한다'고 선언하고 있다.

청소년복지지원법 제3조는 '청소년은 인종·종교·성·연령·학력·신체조건 등 여타의 조건에 의하여 이 법이 정한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하며', '청소년은 외부적 영향에 구애받지 아니하면서 자기 의사를 자유롭게 표명하고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갖는다'고 규정하여 청소년 인권보장을 위한 기본방향을 선언하고 있다.

동법 제4조는 청소년은 사회의 정당한 구성원으로서 본인과 관련된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며 이를 위해 가정과 사회가 적절한 노력을 강구할 것,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이 원활하게 정보에 접근하고 의사를 표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청소년관련정책의 자문·심의 등의 절차에 청소년의 대표를 참여시키거나 의견을 수렴할 것, 그리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과 관련된 정책수립절차에 청소년 참여 또는 의견수렴을 보장하는 조치를 시행해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청소년정책과 시설운영 과정에의 참여를 위한 '청소년특별회의'와 청소년운영위원회의 설립·운영을 제도화하고(기본법 제12조, 활동진흥법 제4조), 인권교육 실시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로 규정함으로써(복지지원법 제5조), 주요 청소년 참여·인권사업 추진의 법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 제 2 장 청소년 인권·참여정책

### 1. 청소년 인권신장 정책

#### 가. 청소년 인권정책 기본계획 수립

청소년정책 통합기구인 청소년위원회 발족과 더불어 청소년 인권분야를 청소년정책의 새로운 의제로 설정하고, 이를 체계적·합리적으로 추진하고자 인권전문가와 전문 연구기관의 참여를 통해 인권정책 방향과 과제를 설정하였다.

2005년 5월 청소년 인권정책 기본방향에 대한 연구·자문을 위해 청소년 인권 TF팀을 구성·운영하였으며, TF팀의 성과를 이어 한국청소년개발원에서 '청소년인권정책 기본방향 연구'를 수행하여 중장기적 청소년인권정책 시행의 발판을 마련하였다(8월~12월).

이 과정에서 청소년관련 부처와 관계기관 및 전문가의 광범위한 참여를 통해 청소년과 일반 국민의 청소년인권에 대한 의식을 강화하고 공감대를 확산하는 데 기여하였다. 2005년 12월 6일(화) 개최된 '청소년인권정책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는 인권정책에 대한 청소년분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로 활용되었다.

#### 나. 청소년인권 실태조사 및 인권교육 자료 제작

청소년위원회는 청소년 인권의식과 인권상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청

소년이 일상생활의 장에서 경험하는 다양한 인권실태와 인권에 대한 인식을 파악하고, 청소년인권 신장을 위한 정책 대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8월~12월). 또한 청소년의 인권의식 신장과 인권감수성 함양을 위한 인권교육 필요성이 증대함에 따라 청소년 인권교육 교재를 개발·보급하였다(10월~12월).

다. 청소년 인권사업 및 프로그램

청소년 인권정책·사업 분야가 형성·정착됨에 따라 2004년부터 청소년육성기금 지원사업에 ‘청소년 인권신장 및 참여 확대’ 분야가 독자적인 영역으로 포함되기 시작하였다. 2004년에는 인권·참여 분야 16개 사업에 3억원을 지원하였다.

2005년에는 1차 공모사업에 11개 사업을, 2차 공모사업에는 9개 사업을

〈표 6-2-1〉 2005년 청소년육성기금 1차 공모사업 중 청소년 인권사업

번호	단체명	사업명
1	군산 YMCA	청소년 인권지기단 - 성화를 통한 지역 청소년 인권한울 만들기 운동
2	서울 YMCA	생각하는 청소년 함께 만드는 평화세상
3	무등청소년회	인권·평화 페스티벌 "인권더하기, 희망더하기"
4	만해사상 실천선양회	아프면서 크는 나무 청소년인권 문화제
5	대전 YMCA	청소년정보인권대회
6	울산 YWCA	니가 진짜로 원하는게 뭐야
7	서울 송파청소년수련관	인권이 Life!
8	창원 YWCA	청소년인권! 우리가 지킨다
9	한국 걸스카우트 연맹	청소년 알자 인권 캠프
10	홍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	청소년 반부패 지킴이 운동
11	한국청소년사랑회 서울지부	1318! 인권에세이 콘테스트

자료: 청소년위원회 공고문

〈표 6-2-2〉 2005년 청소년육성기금 2차 공모사업 중 청소년 인권사업

번호	단체명	사업명
1	평택시 청소년문화센터	청소년 인권 디딤돌 놓기 프로젝트
2	청소년육성국민운동본부	청소년근로권침해예방을 위한 홍보 및 찾아가는 교육사업
3	익정부 YMCA	익정부지역의 청소년스스로위원회 구성 및 활동지원사업
4	한국청소년마을	청소년 비폭력 평화캠페인 생방송 "애들이 말로하자"
5	밝은청소년지원센터	청소년아르바이트실태조사
6	수서청소년수련관	"21C청소년·청소년 양성평등국회"
7	서울 YMCA 영등포지회	일하는 청소년권리보호를 위한 Cool Job
8	마산YMCA	1315, 중학생 인권, 지역사회와 만나다!
9	광주남구청소년수련관	근로 청소년을 위한 "1% 희망 프로젝트"

자료: 청소년위원회 공고문

신청하고 각각 2억원과 1억5천만원을 지원함으로써, 총 20개의 청소년 인권사업과 프로그램에 3억5천만원의 기금을 지원하였다. 또한 청소년 관련 정책 모니터링과 권리신장, 고충 접수·처리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기 위해 '청소년 옴부즈만' 운영 사업을 지원하였다.

라. 청소년인권센터

청소년인권센터는 청소년인권관련 실태 및 의식조사, 침해사례 접수 및 개선 조치, 인권교육 및 프로그램 실시, 인권캠페인 활동 등을 통해 청소년 인권 보호와 권익 신장을 위해 활동하는 기구이다.

현재 충남청소년인권센터를 비롯하여 광주, 군포, 울산, 익산, 진주, 군

산, 제주시 청소년인권센터가 운영 중이며, 사회 인권단체 중 인권운동사랑방과 다산인권센터, 인권실천시민연대 등에서 청소년 인권문제에 대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현재 청소년인권센터 대부분은 청소년 인권문제에 관심을 갖는 민간단체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정부의 공식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광주시의 경우만 자치단체의 지원이 있음).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인권센터는 사회적 관심 부족, 열악한 재정, 전문 전담인력과 네트워크 부족, 청소년 인권 침해 상담·접수 및 처리 권한과 시스템 미흡, 청소년 인권 관련 프로그램과 자료 부족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한국청소년개발원 2003년도 연구결과), 이들 현황에 대한 최근 공식자료도 확보되지 않은 상태이다. 향후 정부의 안정적인 지원과 관심을 통해 청소년인권센터가 청소년인권 모니터링 기구로서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 2. 청소년참여 활성화 정책

### 가. 청소년참여위원회

#### (1) 목적 및 기능

‘청소년참여위원회’는 중앙부처나 지방자치단체에 청소년들로 구성되어 청소년정책이나 활동에 대한 정책자문 및 건의와 다양한 자율·참여활동을 시행하는 청소년 자치기구를 말한다. 즉, 청소년과 관련된 의사결정과정에서 참여하여 다양한 의견제시와 자율활동을 실시하는 청소년 자치조직이다.

정부는 ‘청소년참여위원회’ 운영을 통해 청소년정책 대상인 청소년이 정부 정책결정 과정에 주체적으로 참여하도록 이를 제도화함으로써 청소년정책의 실효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청소년의 권익증진을 도모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청소년위원회(1998년 당시 명칭)’는 1998년 ‘청소년육성 5개년 계획’을 통해 ‘청소년의 권익증진과 자율적인 참여 확대’를 위한 정책사업 중 ‘청소년의 정책참여 기회 확대’ 분야의 세부사업으로 제시되면서 확대되었다. ‘청소년육성 5개년계획’에서는 ‘청소년위원회’의 운영 목적을 “지역과 청소년단체·시설에서 청소년들의 의사와 욕구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제도로서 청소년들이 정책결정, 시설 및 프로그램 운영 등에 참여하여 이에 대한 시정과 대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밝힌 바 있다.

참여위원회는 사례별 차이는 있으나 정기 및 임시회의를 통한 청소년정책 모니터링 및 청소년 의견제안과 정책자문, 설문조사 등을 통한 청소년 실태조사와 의견수렴, 워크숍 개최와 리더십 훈련프로그램 등을 실시하며, 활성화된 위원회는 예산을 확보하여 자체 사업을 기획·실행하기도 한다.

청소년 자치활동으로서 공식적인 자치기구의 구성·운영과 참여 경험은 청소년의 사회적 경험확대와 시민의식 및 자치능력 신장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청소년정책과 사업프로그램의 발전에 기여하는 의미있는 활동으로 밝혀지고 있다.

#### (2) 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운영 현황

청소년위원회 ‘청소년참여위원회’(2005년 11월 현재 제7기)를 비롯하여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등 전국 15개 시·도와 97개 시·군·구에서 ‘청소년참여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있다.

각 자치단체마다 청소년자치위원회, 청소년회의, 차세대위원회, 청소년시정참여위원회 등 다양한 명칭으로 운영되고 있다. 위원들은 지역에 따라 추천(학교장, 시설·단체 등)이나 공개모집 형식을 통해 선출되며, 보통 1년 임기로 활동한다. 청소년위원회 출범 이전 청소년보호위원회에서 운영하던

‘청소년참여분과위원회’ (2001년 1기 발족)는 2005년 5기까지 운영되었고, 청소년위원회 발족 이후 ‘청소년참여위원회’ 로 통합되었다.

〈표 6-2-3〉 시·도별 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 현황 (2005. 11. 현재)

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550	16	23	27	30	17	118	21	60	34	30	51	17	22	44	40

자료 : 청소년위원회 자체보고서

### (3) 2005년도 추진경과

정부는 청소년참여위원회 확충을 위해 8월 중, 16개 시·도에 참여위원회 설치·운영을 요청하였으며, 청소년참여위원회 운영 매뉴얼을 발간하여 이를 지원하였다.

청소년위원회에서 운영하는 ‘청소년참여위원회’는 전국 41명의 청소년으로 구성되어 있다. 청소년단체 추천과 공개모집을 병행하여 위원을 선발하였으며, 임기는 1년이다. 이들은 청소년위원회의 주요 청소년관련 정책과 사업의 수립·집행·평가 과정에 참여하여 자문기능을 수행하며 청소년관련 정책 연구 및 건의활동을 펼치고 있다.

매월 1회와 필요시 수시회의를 개최하여 청소년관련 정책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고, 개인별 정책과제 연구 및 정책제안 활동을 전개하였다. 청소년관련 간행물 등 홍보물에 참여위원회 활동을 홍보하고 청소년의 달에는 ‘청소년정책 워크숍’과 ‘레인보우 프로젝트’ 등 청소년참여 프로그램을 직접 기획하여 추진하기도 하였다. 또한 청소년특별회의 활동에 참여하여 청소년 정책참여와 권익증진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수행하였다.

## 나. 청소년운영위원회

### (1) 목적 및 기능

청소년단체나 시설에서는 청소년이 사업과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된 의사 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청소년 자치기구인 ‘청소년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있다.

특히, 1998년도 청소년 ‘자율·참여’를 기조로 하는 청소년정책 변화로 청소년 단체·시설에서의 ‘청소년위원회’ 운영이 늘어나기 시작하였다. 2000년대 초반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청소년회의’, 서울시 노원청소년수련관의 ‘청소년위원회’, 중랑청소년수련관의 ‘21세기 청소년위원회’, 성남시립청소년수련관의 ‘청소년자치위원회’ 등을 출발로 하여 2003년 청소년활동진흥법 제정으로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서 급속도로 확산되었다.

청소년활동진흥법은 제4조에 따르면, ‘청소년수련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개인·법인·단체 및 수련시설운영단체는 청소년활동을 활성화하고 청소년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청소년으로 구성되는 청소년운영위원회를 운영하여야 하며’, ‘수련시설운영단체의 대표자는 청소년운영위원회의 의견을 수련시설 운영에 반영하여야 한다.’ 또한 동법 시행령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청소년운영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청소년운영위원회 활성화를 촉진시키고 있다.

청소년운영위원회의 목적은 공공 청소년수련시설에 청소년들로 구성된 기구를 구성하여 청소년의 욕구와 의견을 반영한 청소년중심 시설이 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운영위원회는 정기회의와 수시회의를 통해 시설 모니터링과 운영에 참여하며, 1년 사업에 대한 결과보고서로 ‘활동백서’를 발간하여 지역사회에 홍보활동을 펼친다. 운영위원의 자질함양을 위해 워크숍 등 교육·연수프로그램

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타위원회와의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지역사회 내에서 운영위원회가 직접 주관하는 사업과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

정부는 운영위원회 활성화를 위해 운영 현황을 평가하여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실질적인 청소년참여를 유도하며 청소년으로 구성된 운영평가위원회 활성화를 통해 청소년중심의 평가·자문체계를 마련하였다.

## (2) 청소년운영위원회 구성·운영 현황

청소년운영위원회는 10인에서 20인 이내의 청소년으로 구성되며, 위원의 임기는 1년이다(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령 제4조).

시설의 운영위원회는 민주적 방법과 절차에 의해 선출·임명된 시설 및 지역사회의 대표자로 구성되며, 청소년운영위원회 운영 지원을 위해 청소년 지도사를 간사로 배치하고 있다. 운영위원회는 청소년 수련시설의 운영방향, 사업계획의 심의·평가 등을 통해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 전반에 참여하며, 나아가 지역사회의 청소년대표로서 지역사회 청소년관련 정책에 대해서도 참여한다('2004 청소년운영위원회 운영 지원 지침').

정부는 생활권 청소년수련시설에 청소년운영위원회의 운영경비를 지원하여 청소년시설과 지역사회에서 청소년이 주인으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는 실질적 참여방안을 마련하였다. 2003년도부터 16개 시·도에서 운영 중인 생활권 공공청소년수련시설에 청소년운영위원회의 운영비를 지원하고, 운영위원회 평가와 운영 컨설팅활동을 통해 우수청소년운영위원회를 선정하여 인센티브를 부여하였다.

우수운영위원회 선정을 위해 청소년으로 구성된 '평가단'을 구성하여 서면 조사와 현지실사를 통해 시설운영에의 참여정도와 운영실적 등을 평가하였으며, 최종 선정된 운영위원회에는 해외 청소년시설 방문기회를 제공하였다.

2003년도에는 청소년수련시설 85개소에 500만원씩 운영비를 지원했으

며, 2004년도에는 126개 신청 시설 중 104개소에 시설별로 250만원을 운영비로 지원하였다.

2003년도 우수청소년운영위원회는 경기도 부천청소년수련관과 울산광역시 남구 청소년문화의집 운영위원회가 선정되었으며, 2004년에는 경기도 영통청소년문화의집과 충청북도 매포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운영위원회가 선정되었다.

2004년 7월 31일부터 8월 1일까지 'Be Young!!! Get Power!!!(청소년의 힘으로)'라는 주제로 전국 청소년운영위원회 대표자 80명이 참가하는 청소년운영위원회 포럼을 개최하였고, 12월 20일부터 21일까지는 청소년운영위원회 지도자 120명을 대상으로 청소년운영위원회 지도자 포럼을 개최하였다.

2004년에는 청소년육성기금사업으로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운영위원회 활성화와 협력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청소년운영위원회 교육·지원 프로젝트(청소년문화공동체 품 주관)'가 시행되어, 청소년운영위원회 대상 연합 워크숍을 통한 자치활동과 문화기획교육, 컨설팅, 토론회, 사례집과 매뉴얼 발간 등의 사업이 진행되었다.

## (3) 2005년도 추진경과

2005년에는 104개 시설에 200만원씩의 운영비를 지원하였으며, 중앙청소년운영위원회 평가단(10명)을 구성하여 평가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당동청소년문화의집과 신월청소년문화의집 등 2곳의 청소년운영위원회가 우수청소년운영위원회로 선정되어, 11월과 12월 중 5박6일 동안의 일본 해외연수 프로그램에 참여하였다.

8월 27일부터 28일까지 1박2일 동안 국립중앙청소년수련원에서 청소년운영위원회 대표 80명이 참여한 가운데 청소년운영위원회 포럼을 개최하였



다. 12월 중에는 청소년운영위원회 운영 우수사례 모음집을 발간할 예정이며, 청소년운영위원회 지도자 120명을 대상으로 청소년운영위원회 지도자 포럼을 개최할 계획이다.

2005년도에는 청소년운영위원회 설치 확대를 위해 16개 시·도에 협조 요청을 하여 현재 110개 청소년운영위원회가 170개로 늘어날 전망이다.

#### 다. 청소년소리기자단

청소년소리기자단은 자율성과 주체성을 기반으로 한 청소년의 참여기반을 확보하고 정부의 청소년정책에 대한 청소년의 의견을 반영하는 매개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구성되었다.

2000년 11월 구성 당시, 청소년보호위원회에서 청소년정책에 대한 청소년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유도함으로써 청소년의 현장감있는 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고, 사이버 공간에서 청소년의 자율적인 유해환경 정화 캠페인 등을 통해 건전한 사이버 문화환경을 조성하고자 운영하기 시작하였다.

소리기자단의 기능은 청소년 유익정보 제공 및 유해환경 고발, 청소년 생활환경과 관련된 취재·분석·칼럼기고, 청소년정책 토론회와 자문·제안·홍보활동, 기타 청소년의 권리신장을 위한 청소년의 소리 전달 등이다.

기자단은 준기자, 정기자, 우수기자, 운영진, 명예기자로 구성되어 있으며, 만 13세 이상 19세 미만 대한민국 청소년이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청소년소리기자단 홈페이지(www.youthdream.go.kr)를 통한 의견제시 등 온라인 활동과 기자단 워크숍 등 오프라인 활동을 병행하여 실시하고 있다.

#### 라. 청소년의회

청소년위원회는 청소년의 정책참여 통로를 다양화하고 활성화함으로써 청소년의 삶과 관련된 지방자치단체 정책 전반에 청소년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지역 청소년의회' 구성·운영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역 청소년의회'를 통해 청소년의 생활기반인 '지역사회'에서 청소년 삶과 관련된 현안사항을 인식하고 이를 지역의 공식 입법체계 내 의사결정 과정에의 참여를 통해 해결해 나갈 수 있다는 취지이다.

지방의회 소속의 청소년의회는 지역 예산의 심의·확정, 조례의 제정 및 개폐 등 주민생활의 주요사항을 의결하는 등 주민의 대표기관, 의결기관, 입법기관, 그리고 집행감시기관으로서의 기능을 갖는 지방의회 시스템 내에서 공식적인 위상과 권한을 갖도록 구성·운영될 계획이다.

청소년의회 운영을 통해 연령제한으로 선거를 통해 표출하지 못한 지역 청소년의 의견과 욕구를 모아 예산과 법규와 정책이 청소년 권익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결정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역할을 해나갈 수 있다.

청소년위원회는 2005년 10월에 각 자치단체와 지방의회에서 청소년의회에 대한 관심을 갖고 청소년의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지역청소년의회 구성과 운영을 위한 실무매뉴얼'을 개발·보급하였다. 2006년도에는 4~5개의 지방의회를 대상으로 시범운영을 거친 후 청소년의회 운영을 정착·활성화할 예정이다.